

海清堂

제 3 호

2538년 가을

초승달 한잔 一正 



송광사불교전문강원

지광스님의 겨울

인월암은 음터다. 그래서 그런지 인월암은 늘 축축하고 서늘한 느낌을 준다. 올 봄에 지광 스님이 오면서 오랜만에 이곳에도 봄다운 봄이 오는 듯했다. 스님은 학인들과 어울려 차밭에서 차잎을 따기도 했고, 영어회화 강의를 맡아 가르치면서 얼굴을 붉히는 스님에게 ‘괜찮아요, 나 누나예요’ 하며 같이 얼굴이 빨개져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지광 스님과 학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앞서 인월암에 살다간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지광 스님도 병이 났던 것이다. 지광 스님은 호주가 고향이다. 대학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미술 교사로 활동했고, 남방불교 사원에서 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구산 스님이 쓰신 ‘nine mountains’를 읽고 매료되어 15년 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송광사 불일국제선원에 왔다. 그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남자 친구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구산 스님에게서 화두선을 배우고, 이후 줄곧 운수납자로 선방을 다니다 잠시 운문사 강원에서 경을 보고, 구산 스님이 그림고 조계산이 좋아서 다시 송광사로 돌아왔다. 지금도 스님이 정진하시는 방에는 구산 스님과 육조 혜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스님은 조계산이 몸에는 맞지 않는데 마음에는 꼭 맞는다며 아마 자기는 전생에 송광사스님이었을 거란다. 하지만 인월암에 온 뒤로 상기가 되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핏발선 눈으로 안절부절하는 스님의 모습은 학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금껏 인월암에 살았던 스님들이 한결같이 병이 났던 이유는 암자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래 암자가 있던 자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몇 발짝 양지쪽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복원할 때 수맥이 지나가는 현재의 자리에 지으면서 습기가 차고 음습해서 사는 스님마다 병이 나서 몇 철 못 살고 떠나곤 했다.

집을 본 터로 옮기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워서 지금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정진하는 방만 따로 지으려 했지만 사중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끝내 지광 스님은 이번 겨울을 송광사에서 나지 못하게 되었다, 인월암에 산 지 두 철 만에 스님은 지칠대로 지쳐서 하안거 해제하자마자 호주 고향집으로 쉬러 가셨다. 동안거 결제에 맞춰 귀국해서 비구니 선방에 방부 드리겠다고 했지만, 10여 년 만에 돌아온 송광사에서 겨울을 날 수 없어 다시 선방을 전전해야 할 스님을 지켜보는 학인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 들밖에 없고 수선납자로는 유일하다는 눈푸른 비구니 지광 스님은 가장 수행 도량답다는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왜 겨울 안거를 날 수 없는 것일까?



海清堂

제 3 호 / 2538년 가을

= 차 례 =

조계의 물소리

ii / 지광스님의 겨울

포토에세이

2 / 그림자 자공

특별기고

26 / 강원은 수행 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시

7 / 만우모색 고경

31 / 길손에게 천호

39 / 바람따라 회일

41 / 불일암忍庵

특집 여행기

4 / 마라도 보적

8 / 神에게 바치는 춤, 神에게 바치는 노래 연등

13 / 금와 보살 - 오대 보궁 순례기 진경

산문

33 / 행자 교육원의 하루 도강

34 / 송광사 스님들 종지

38 / 복 본연

40 / 첫 안거를 마치고 도선

42 / 도상파편 설주

시봉기

20 / 도성당 시봉기 보원

학생회

18 / 전쟁 노휴

36 / 스님 다음엔 천팔십배 해요 신수미

37 /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김나영

강원소식

22 / 화보로 본 강원소식

32 / 법흥스님 <戒律綱要> 펴내

35 / 흥미경보살

43 / 원고모집 · 표지화가

44 / 편집후기 · 안내

『해청당』 제 3 호

발행처 :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발행인 : 효원(입승)

발행일 : 2538년 10월 1일

고 문 : 지운

편 집 : 회일, 보원, 랑림, 한운

사진·삽화 : 하일, 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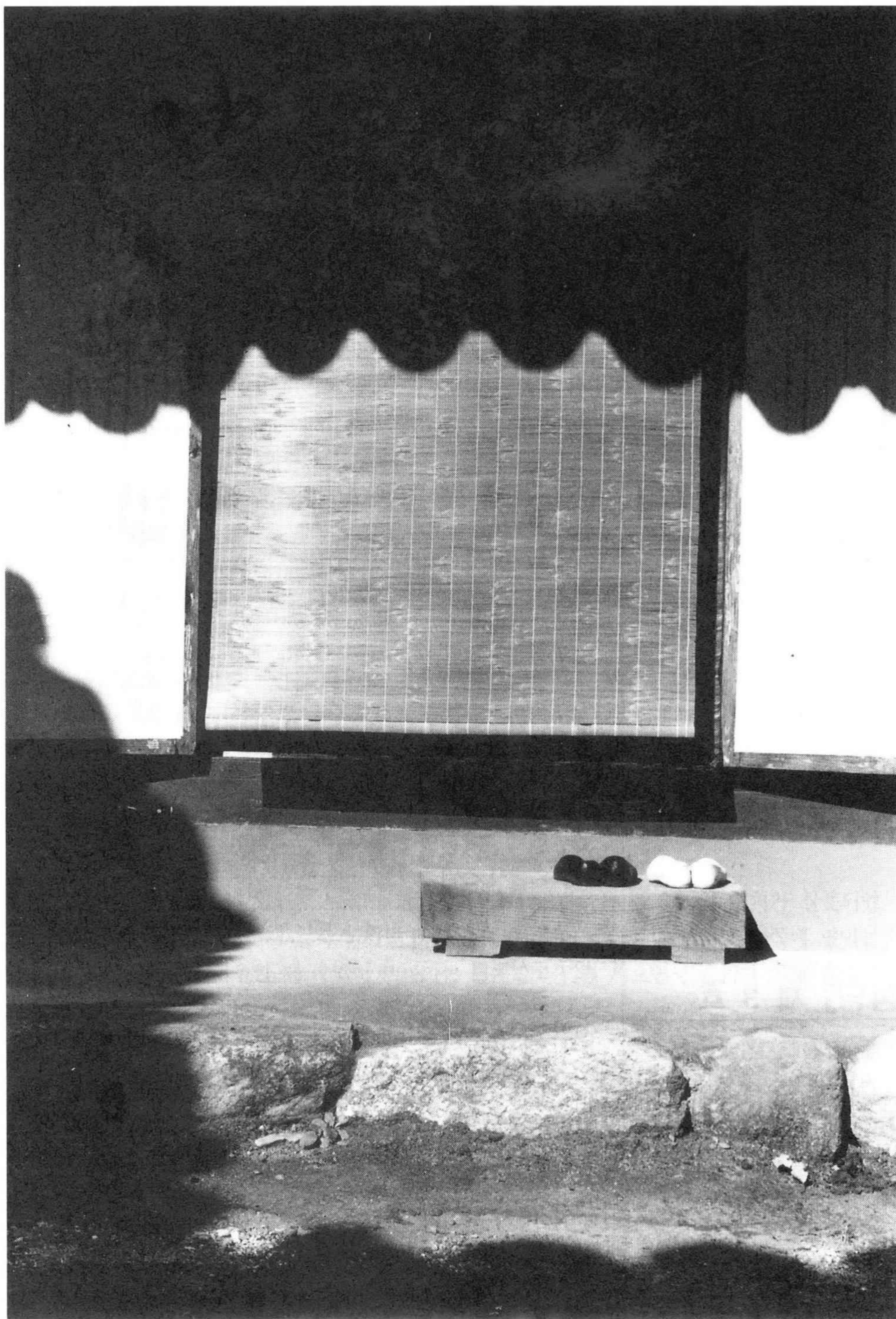
주 소 :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 (0661)53-2131

인쇄소 : 도서출판 보림

광주시 동구 서석동 62-1

☎ (062)232-6702





그 림 자

여기, 한 세계 따로 있네
눈길 스쳐지나가기만 많은 세월
단련된 말없음으로 다시 아침 맞이하면
어느새 익숙한 치장 하였네

작열하는 시간 선명한 그림자 이루고
어떤 도리나 되듯
문 앞에 섰네
여기, 한 세계 따로 있네

사진·글 : 자공/교무

마라도

보적/사집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기 위함인가. 나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진을 치고 숨죽이고 있는 모슬포항에서 마라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바닷물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몸을 뒤척거리고 햇빛에 반사된 바다 빛깔은 초록색 하늘빛을 담백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옅게 토해내기도 하면서 낮색을 달리하고 있었다. 바닷물이 제주도를 서서히 밀어낸 지 40분 정도 지나서 오래된 시골집이 뒷마루를 꺼안고 쓸쓸히 앉아 있는 것같이 보이는 마라도에 발을 디더 놓았다.

이국적인 향취가 풍기는 언덕 위로 우뚝이 솟아 있는 등대와 몇 채 안되는 집과 교회가 보였고 여기저기 풀밭에서는 까만 염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바닷가 쪽으로 걸음을 옮겨서 망망하게 던져진 바다를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거무튀튀하고 구멍이 어지러이 뚫린 현무암으로 둘러싸여진 마라도는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걸망을 짊어진 낯선 방문객을 묵묵히 받아들여 주었고 나 역시도 춤사위에 넋을 빼앗긴 사람마냥 풍경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나는 마라도에서 유일한 절인(이런 곳에 절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기원정사'를 찾아갔다.

문 대신에 커다란 돌기둥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곳을 지나자 인부들 몇몇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있었고 그 위에 꼭 통나무집같이 생긴 법당이 고즈넉히 자리잡고 있었다. 마침 주지 스님은 출타중이시고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다고 한다.

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법당에 짐을 풀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늘밤은 여기서 불을 밝히리라.

그런데 법당 바닥에 제비같이 날렵하게 생긴 새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새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는 새를 두 손으로 꼬옥 감싸쥐고 법당 밖 풀숲에다 던져버렸다. 구름은 무심히 흘러다니고 여기저기 종류가 다른 새들이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법당에 다시 들어와 보니 또 웬일인가. 새 몇 마리가 파닥거리면서 나갈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넓은 창문을 찾지 못해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는 새가 안타깝고 불쌍해져서 나는 출구를 찾게 해줄 요량으로 새를 요리조리 몰았지만 운 좋은 새만 간신히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지 못한 새 몇 마리는 지쳐서 법당의 상량대 위에 날개를 접고 쉬고 있었



다. 그제야 나는 왜 새가 죽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새는 법당에 날아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이다.

나는 그때 순간적으로 섬뜩해졌다. 나도 또한 저 새들과 같지 않은가. 스스로 만든 커다란 새장에 갇혀서 결국은 굶어 죽어 갈 저 새들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결국 지쳐서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 올려져 무심히 땅 위로 던져 지리다. 새들이 다시 날개를 파닥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왜 수행을 하고 있으며 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 저것을 뒤적거리고 여기 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은 또 어느 곳인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면서 시대의 조류를 탓하며 진정한 선지식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생각이 아닐까. 왜 내가 선지식이 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만 종종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때에 대부분 수행 방법이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삶에 대한 성실성이나

수행에 대한 열의 혹은 내적인 수용성이 부족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도리어 아상이 높아진다면 비록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성심을 다하며 소박한 삶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며칠 전에 공부를 잘하는 토굴 스님이 고창 소요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 뵈었다. 몇 사람 들어가면 꼭찰 조그마한 흙집에서 같이 이틀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결망에 잔뜩 오만함을 짚어지고 아상이라는 잣대로 내 틀에 맞춰 요리조리 키재기나 하고 온 것은 아닌지. 저 바다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큰 그릇이 되라고 넌지시 눈짓을 한다.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불법을 들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큰 사람을 가리켜 상근기라는 말을 쓴다.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와 있으면서 목주 스님의 청으로 황벽 스님께 불법의 긴요한 뜻을 물으라는 말을 듣고 세 번 물으러 가서 세 번 다 몽둥이로 맞고 나온다. 이에 임제 스님은 오히려 스스로 불법의 깊은 뜻을 깨우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일화가 있다.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떳떳한 큰 용기, 나는 여기서 부끄러워졌다. 근기가 뛰어나다는 것이 단순히 지혜가 총명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을 철저히 깎아주는 것들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 53 선지식을 참문하면서 두두물물 부딪히는 온갖 경계를 자신의 스승으로 돌리는 치열한 구도심이 바로 진정한 공부인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바람이 많이 분다. 법당 밖으로 나와서 울퉁불퉁한 현무암을 짚고 바닷가를 헤매다가 바위 밑에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 새를 보았다. 나는 새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그런데 오히려 놀란 것은 내 쪽이었다. 달아나기는커녕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계속 쳐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더욱 당혹스러워져서 새에게 물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새는 여전히 미동도 않고 침묵하고 있었고 이 물음은 반향이 되어 나의 뇌리를 때렸다. ‘그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뉘시꾼들이 뉘시바늘을 꿰다가 떨어뜨린 새우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위에서 나는 하루종일 바다를 마시며 보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바다는 수줍은 듯이 담홍색으로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고 주위는 아득히 고요해졌다. 어스름이 서서히 퇴색해 버리자 삼시간에 어둠이 밀려왔다. 그와 더불어 여기저기서 오징어잡이 배들이 환하게 불의 잔치를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찬란히 보이는 그 잔치 속에는 뼈아픈 현실이 춤을 추고 있을 것을...

바람이 더 심해졌다. 한 시간 남짓 섬 주위를 바람 쏘이며 돌아다닌 다음 풀밭에 누워서 파랗게 빛나는 별들을 눈에 담아서 법당으로 들어왔다.

새 몇 마리가 어둠 속에 파닥거리고 있기에 혹시 밤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무슨 모기가 그렇게 지독하게 많은지 밤새 마라도 모기와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스프르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아릿하게 귓가를 울리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파도, 파도 소리. 바다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던 것이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거친 숨을 토해내면서 고동치고 있었다. 도량석을 들고 예불을 올린 다음 해돋이를 보기 위해 파르스름하게 밝아오는 동녘

하늘 바위 밑에 걸터앉았다. 하늘이 밝아지면서 등대는 눈을 감았고 새들도 두런두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주위가 적막으로 물든 가운데 빨간 솟덩이 같은 해가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더욱 신비로운 것은 날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바위에 앉아서 떠오르는 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순간은 얼마나 찬란했는가. 해가 뜨고 지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겨들어 영원을 속삭인다.

바람이 달게 피리를 불어댄다.

나는 아침을 먹고 벌써 절망을 꾸리기 시작했다. 우선 물이 부족하고 공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파도 소리가 내 귀를 먹게 해서 인지도 모른다. 나는 또 어디로 떠날 것인가. 마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더 고요한 곳을 찾아 들어갈 것인가. 누군가가 말했다. "명상을 하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대는 깊은 산중에서 또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명상조차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작업이 되어버릴 것이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히말라야인 것이다." 마음은 극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먹이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면서도 마음은 벌써 정상에 가 있다.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상을 꿈꾼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서는 또 어떠한가 마음은 벌써 하산해 있지 않은가. 깨달음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지식을 쌓아 올리지만 정작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인 이 순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례하고 무관심한가. 지금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 깨어 있을 것인가. 과정 자체가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야말로 들꽃의 향기를 뿜어낼 것이다.

커다란 구름이 움직이면서 바다에 검은 그림자를 떨구고 지나간다.

나는 그날 몸살이 나서 마라도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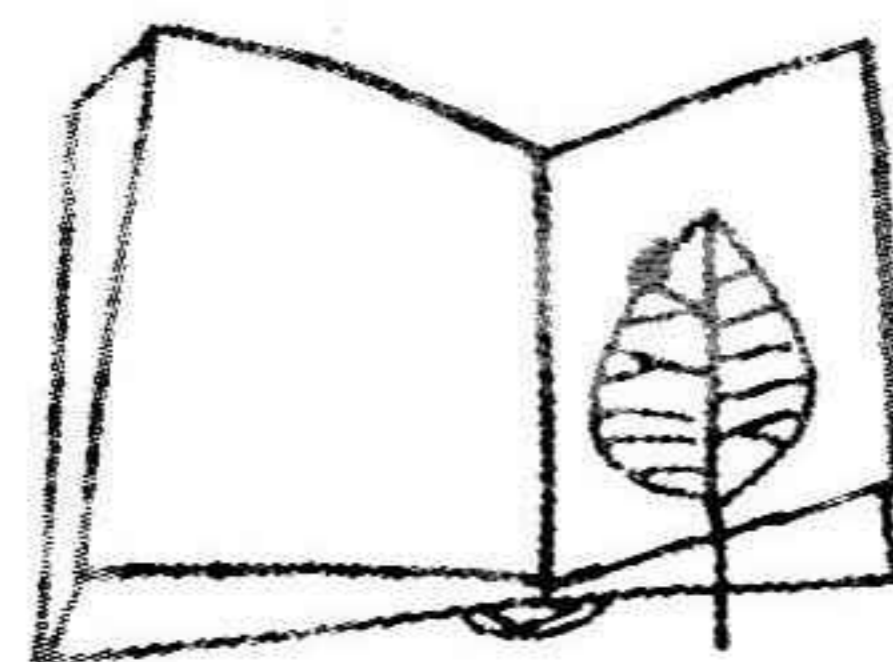
만우모색

고경/사교

청솔 태운
잉겔불로
끓이는
마음가지

단풍보다
고운 빛깔
연기구름
가리우네

여울 속 가랑잎배야
솔잎삿대 거두우고
바람따라
가시게나



神에게 바치는춤, 神에게 바치는 노래

연등/사진

낮에 미리 예매해 둔 버스표를 손에 쥐고 밤 열시에 출발하는 코냐행 심야 버스를 타기위해 이스탄불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토카피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좁디 좁은 터미널은 늦은 밤인데도 차들과 승객들, 장사꾼들로 뒤섞여 그야말로 이수라장이었다.

보슬비까지 추적거리며 내리는 사이로 어깨 비벼들이밀 틈조차 없는데 무거운 걸망을 등에 진 채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리저리 흐르다 겨우 내가 탈 버스의 매표 사무실에 도착하여 예약을 재확인하였다.

어두침침한 조명, 자욱한 담배연기 사이로 어디선가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검은 콧수염을 멋있게

기른 버스회사 매표 직원은 사람들의 문의에 응하느라 바쁘다. 차도르를 둘러싼 이슬람 여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사이로 나도 피곤한 엉덩이 들이밀어 딱딱한 벤치 위에 앉았다.

한 시간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무릎을 채이며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내 손을 잡아 이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탈 코냐행 심야버스의 차장이다.

그는 보슬비가 내리는 어두컴컴한 터미널의 이수라장 사이를 내 손을 꼭잡고 사람들과 쓰레기더미를 헤치며 앞으로 나간다. 마치 난리통에 피난길에 자식

손목을 꼭 잡고 덤불숲을 헤쳐 나가는 엄마와 같이. 그 사내의 꼭잡은 손을 통하여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그의 마주잡은 내 손바닥 안에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두운 침침한 조명 아래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았지만 그의 손바닥에 난 축축한 땀을 통해 끈적끈적한 친밀감이 느껴진다.

어두운 빛속에서 그에게 손잡혀 이끌려가면서 생각한다. 그는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몇 년 전 어느날 황혼녘.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록 라다크로 들어가는 트럭의 킁킁한 짐칸에 실려 짐짝같이 흔들리고 꼬부라지며 극한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찾아 어디로, 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탈 버스는 터미널 안이 너무 복잡하여 진입하지 못하고 바깥차도 옆 보도 위에 주차하고 있었다. 그 사내는 나를 버스에까지 인도하더니 씩 웃고 올라타라는 시늉을 한다.

버스는 사람들이 다 올라타고도 삼십 여 분을 마냥 서 있더니 드디어 보스포러스 해협의 불빛을 뒤로하고 은밀한 소음의 도시 이스탄불을 떠난다. 유럽 대륙 쪽에 위치한 토크아피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순식간에 아시아 대륙쪽으로 들어서더니 밤새 눈보라를 헤치고 터키의 내륙인 바위투성이의 아나톨리아 고원을 달린다. 때로는 눈덮인 벌판에, 때로는

건조한 구릉 지대가 차창 밖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다.

밤새 터키 내륙을 횡단한 버스는 드디어 그다음날 오전 열시 반 코냐 버스터미널에도착했다. 열두 시간의 여행이었다.

코냐. 이 곳은 바로 12세기 셀주크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보다 나에게는 위대한 수피(이슬람 신비주의자) 메블라나(1207~1272)로 인하여 더욱 의미 있는 곳이다. ‘잘라루딘 루미’라고도 불리우는 그는

원래는 현재의 아프카니스탄인 ‘발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소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곳 코냐로 이주해온 뒤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부친의 뒤를 이어 전통적인 회교 성직자의 길을 걷던 그는 늙은 수도승 ‘샘’을 만나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다. 깨달음을 얻은 뒤 그는 이곳에서 그의 가르침을 펼치다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그는 종교적인 깨달음과 영적 체험에서 오는

희열,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였다. 나아가 그는 아예 신에 이르는 길로서 신에게 비치는 춤과 노래를 종교적 수행의 수단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아주 소박하고 시골스런 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너무 막막하였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다. 코냐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부족한 마당에 말까지 전혀 통하지 않으니 완전히 절해고도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의 손길은 꼭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이전, 하나님의 도움이전, 알라신의 뜻이전간에. 우선 썩 숙소를 찾기위해 미리 조사해 가지고온 여관 주소를 들고 한참 왔다갔다 하며 눈보라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영어 단어 겨우 몇개 발음하는 중학생 아이가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이곳 저곳을 수소문을 하여 한 곳으로 안내해 준다. 고맙다고 했더니 한국으로 돌아가면 편지 하라고 자기 주소를 적어준다.

마침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적 금식 시간인 라마단이 막 끝나고 사흘 간의 축제가 시작되던 참이었기에 나도 사흘 간 이곳 코냐에 머물기로 했다.

숙소에서 잠을 풀자마자 나는 십여 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메블라나 모스크에 가보기로 했다. 모스크는 북적대는 시장을 가로질러 코냐 시내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모스크는 아름다웠다. 둥그스름하면서도 평평한 모스크 특유의 돛지붕 한쪽으로는 파란색 타일을 붙인 원통형의 몸체 역시 파란색 타일을 붙인 원추형의

지붕을 이고 있는 아담한 첨탑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솟아 있었고, 모스크 전체를 뿔 둘러서 작고 가느다란 굴뚝들이 마치 늘어선 깃발들처럼 나란히 도열해 있었다.

모스크 안은 참배객들로 붐볐다. 중앙의 넓은 홀은 메블라나와 그의 부인,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관으로 메워져 있었고, 옆 홀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메블라나가 기도할 때 깔았던 카펫, 춤출 때 입었던 의상, 코란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홀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올려다본 지붕과 벽돌은 아라베스크한 조각들과 문양들, 그리고 한껏 멋을 부려 마치 춤추는 것 같은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의 구절로 가득하였다.

여러 관들 중에서 특히 메블라나의 관이 가장 컸고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조명까지 비추고 있으니 시체를 담은 관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훌륭한 예술품 내지는 보물상자로 비칠 지경이었다.

박물관을 다시 한 번 더 돌고 나서 나는 메블라나의 관 앞에 다시 가서 섰다. 분명히 음악이 흐르고

있지 않은데도 나는 마치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황금빛으로 흐르는 음악 가운데에서 메블라나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참배객들은 그 앞에다 대고 무수히 머리를 조아린다. 그렇다.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들이란 메블라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보다는, 즉 그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춤으로 만들고, 향기로운 노래를 만들기 보다는 이미 죽어 버린 메블라나의 시체를 황금관 속에 싸집어넣고 그 앞에서 무수히 절을 하는 쪽을 택한다.

위대한 수피 메블라나. 그는 궁극적인 영적인 체험 끝에 신과 합일을 체험하였고 그 합일에서 오는 희열을, 신에 대한 불타오르는 사랑에의 열망을 이기지 못하여 마치 열병환자처럼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댔고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추어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신을 만나고 신을 체험하였으며 끝없는 신과의 사랑으로 불타 올랐다.

그에게 있어 개개의 인간들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과 방황, 그리고 가슴앓이는 결국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교향으로서의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단지 편협하게 인격적인 유일신으로 보아서 시비심을 내지는 말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명사 정도로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자). 그는 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안식을 얻으려는 인간의 열망을 직접 시로 노래 하였다.

그가 반초월 의식 상태에서 노래한 시구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하여 방대한 양의 시집으로 정리되었다.



나아가 그는 신에게 이르는 방법으로써 춤을 추었고 춤의 엑스터시 상태 속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는 신에 대한 경외보다는 신에 대한 불타오르는 사랑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은 당연히 당시에 근엄했던 회교 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코란을 거스르는 경건치 못한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들에게 있어 신이란 父性 이미지를 가진 경외 대상이었고 어두컴컴한 골방의 기도실에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한없이 가슴을 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존재였다.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걸음걸이조차도 신 앞에서 조심하여 걸어야 할 판에 노래를 부르고 신과 함께 춤을 추자고 하니 그가 이단시되고 탄압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신에게 바친이였고 진정으로 코란이 의미한 대로 살았던 것이었다. 자기의 어둡고 무거운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느끼는 밝음과 가벼움, 그리고 기쁨, 그리고 대자유 속에서 만나는 신(이름이야 어떻든간에)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신이 아니겠는가? 에고가 밝음과 기쁨. 사랑속에서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져서 기체화되어 휘발되어버린 자여! 지옥의 사자도 그를 찾지 못할 것이며 그를 어디로 데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무게도 없이 너무 가

별기 때문에.

경건함을 가장한 심각함과 죄의식, 그리고 행복한 내세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자여! 그의 영혼은 잔뜩 무거워진 예고로 인하여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다 못하여 지옥에 이를 것이다.

일방적인 경외와 숭배 속에서 죄의식에 찌든 채로 내세의 행복을 위한 계약 관계 속에서 만나는 신이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공포심, 그리고 죄의식의 심리적 투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고의 소멸의 길이라기보다는 예고를 한층 더 무겁고 어두운 쪽으로 강화 시키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종교적 자유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부자유와 무거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자신의 마조히즘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역설적으로 기쁨을 얻는다면 그거야 그 자신의 일이니까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신은 그렇게 해야만이 만날 수 있다고 단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대한 종교가는 항상 위대한 반항가이자 혁명가이기도 하였다. 기존의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권위적 관념과 상식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단이라는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메블라나는 그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신에 대한 불타 오르는 사랑으로 계속하여 춤추고 노래하였다.

밝음과 기쁨,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그의 웅변적 현존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당대 사람들의 귀의를 받았고 종내에서는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들까지도 감복하여 귀의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을 감미롭게 포도주로 빚어 신의 제단위에 사랑의 예물로 바쳐올린 그는 신을 사랑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진정한 종교인이자 신비주의자였다.

모스크를 나와 간이서점에서 메블라나에 관한 간단한 팸플릿과 그의 교파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음악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샀다. 코냐 시내와 교외

를 돌아다니다가 밤이 이슬하여 다시금 메블라나의 모스크 앞에 섰다. 묘지 사원을 겸한 모스크는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노란 불빛들이 새어나오는 조그만 굴뚝들로 둘러싸인 모스크는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를 떠올려 본다.

神이여!

그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다네

이 세상을 꿈과 같이 보는 이만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을 떨쳐 버린 이만이

눈과 입과 코와 귀의 감각을 버린 이만이

그를 가슴에 느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네

가슴속에 열렬한 사랑을 가진 이에게만

삶은 황금으로 빛나는 것이라네

신을 찾으려고 어느 곳으로 가려 하지 말게

신을 어떤 모양으로도 찾으려하지 말게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아이들 몇 명이 재잘거리며 모스크 앞을 뛰어다닌다. 몇 걸음을 걸어나와 모스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선다.

“메블라나여. 달빛 속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이제 잠을 깨어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어요 가슴속에 사랑이 가득한 이여. 생명의 희열이 넘치는 이여.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생명의 춤을 추어요!”

느껴지십니까?

그대 주위에 황금빛 음악이 흐르는 것을

메블라나가 손을 내밀어 그대를 우주적 춤으로 이끄는 것을.

금와보살 - 오대 보궁 순례기

진경/사교

이번 방학에 내가 우리나라 오대보궁에 참회기도를 떠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번 안거가 나에게 다사다난했던 한철이었다. 어려웠던 만큼 나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놈'이 출가할 때의 그 마음은 어디다 팽개치고, 아직도 속가의 습을 버리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는 데 꼬달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처량할 뿐이다.

'뭐 하려고 출가했노?' 하고 자문했을 때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부처님을 욕되게 했고, 나를 상좌로 받아주시는 은사 스님께 누를 끼쳤고, 주위 도반 스님들께 부담만 주었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불효했고, 청정한 삼보 시주물만 낭비했으니 출가 수행자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참회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둘째는,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재발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능엄경은 지금까지 내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 현상계에서 모든 일들이 나의 망념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행만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능엄경에서는 특히 계행이 청정해야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이 깊어져야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하고, 계정혜 삼학의 근본은 계율이라고 강조한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계율 정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당 스님께서도 계율을 강조하신다. 글도 잘 새기지도 못하는 나에게 능엄경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강사 스님과 도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보궁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천호 스님께 의논을 했더니 보궁 참배 순례단(?)을 모집하여 하루에 삼천 배씩 한 곳에서 삼일 간 하자고 했다. 강원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냈더니, 사집반 보원 스님과 치문반 송원 스님이 지원하였다. 그런데 사집반 치문반 방학이 보름밖에 되지 않아 오대 보궁에서 삼 일씩 삼천 배를 할 수 없어

봉정암, 상원사, 법흥사에서만 삼 일씩 삼천 배를 하고 정암사는 법흥사 가는 길에 잠깐 참배만 하고 통도사는 나 혼자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또 하나 생겼다. 내가 탐전 시자 소임을 맡은 후 한번도 방학을 다 사용한 적이 없었다. 탐전을 비워 두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지장전에서 백중 기도를 하면서 보궁 참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발원하였다. 그리고 삼천 배 참회를 할 수 있도록 절을 조금씩 해두었다. 해제날 은사 스님께 말씀 드렸더니 여비까지 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탐전도 무량, 종지 스님이 봐 주시겠다고 해서 일이 뜻밖에 잘 풀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해제일에 천호, 보원, 송원 스님은 먼저 낙산사로 떠났고 나는 그 다음날 낙산사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출가 전에 출가를 결심한 도량이고, 출가 후에는 재발심하여 보궁 참배하는 시발점이 된다 생각하니 낙산사는 나와 인연이 깊은 도량인 모양이다. 내가 삼경종이 칠 때 도착했는데 다른 스님들도 조금 전에 도착했다며 세면을 하고 있었다. 소풍가는 아이들마냥 무척 반갑고 약간은 흥분해 있는 듯했다. 바다 냄새를 머금은 밤공기가 시원하고 보름달이 밝게 비쳐서인지 다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다. 보원 스님이 해수관음상과 홍련암에 가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모두 밖으로 나왔다. 밤 바다의 파도소리와 바위에 부서지는 포말이 해안 초소에서 비치는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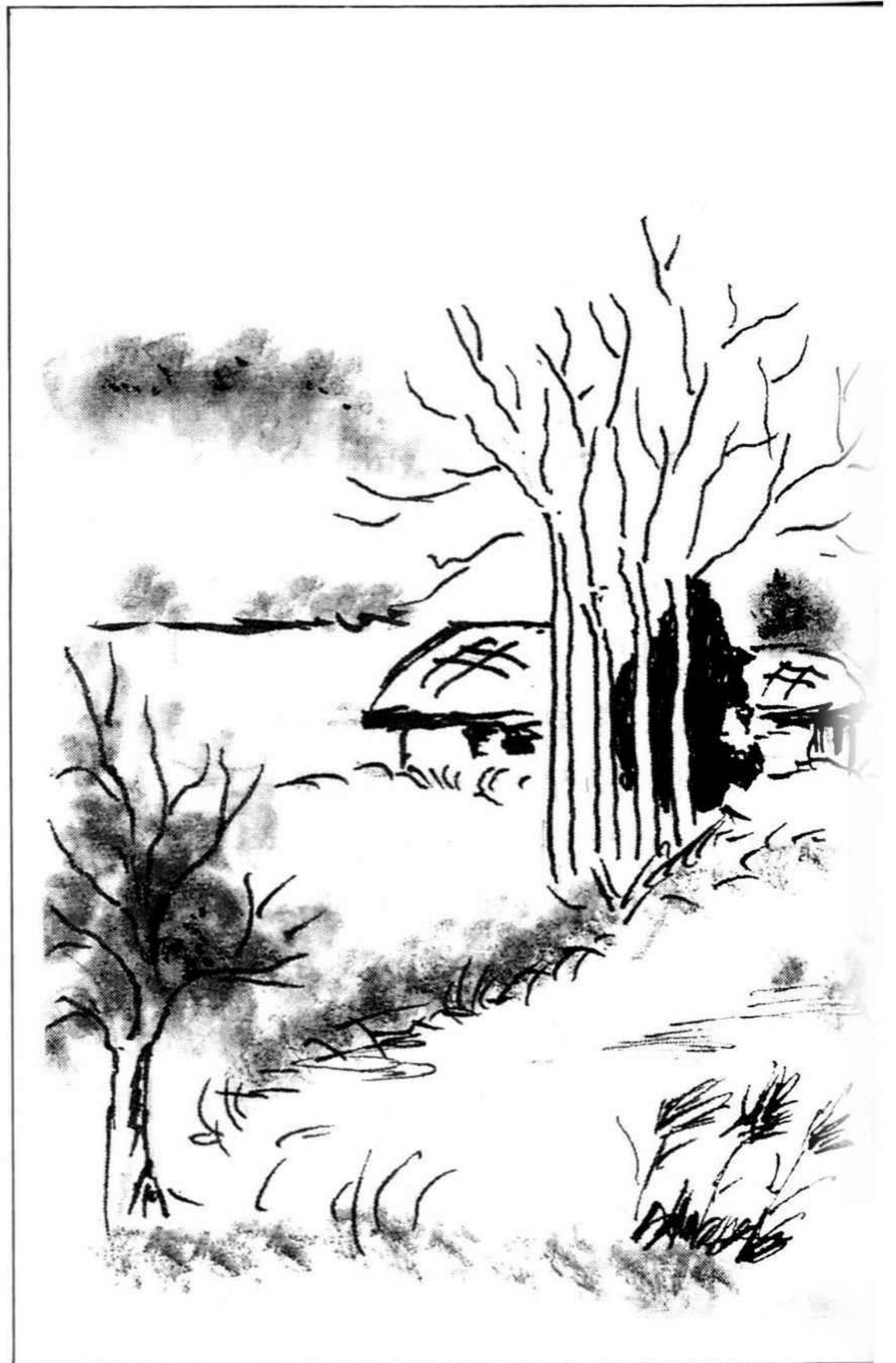
해수관음상에 참배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출가 전에도 밤에 이곳에서 혼자 절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봉정암으로 향했다. 차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자고 주장했으나 '이번 순례의 목적이 참회 기도인 만큼 편안하게 다닌다는 게 옳지 못하다'는 천호 스님의 편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고 버스

에서 내리면 다음 버스와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해서 크게 고생하지 않고 백담사 입구까지 왔다. 강원에서 다각 소임을 맡았던 스님답게 보원 스님과 송원 스님이 차담부터 챙긴다. 백담사로 들어가는 길을 걸으면서 포도를 먹는 맛이 정말 좋았다. 백담사에 잠깐 들렀다가 오세암에 올라가서 주지 스님을 뵈었는데 오세암에 얽힌 전설을 재조명해 주셨다.

관음 도량으로서 신심도 생기고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도량이었다. 인연이 되면 꼭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오세암에서 봉정암으로 가는 길목에 흐르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미역을 감고 가기로 했다. 흘러당 벗고 물에 뛰어드니 물이 너무 차갑다. 조계산의



계곡물과는 전혀 달랐다. 땀만 닦고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니 신선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봉정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저녁 예불 후 사리탑에 올라서 설악산을 내려다보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쌓인 피곤함이 일시에 사라진다. 자연의 위대함에 새삼 숙연해졌다.

다음날부터 삼천 배 참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제 등산한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아서인지 무척 힘들었다. 오후에는 허기까지 저서 갈등을 일으켰다. 불단에 올려져 있는 공양물에 강한 욕심이 생겼고 탑전 냉장고에 두고 온 빵, 과일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참회 기도가 어려웠다. 송원 스님은 오전에 삼천 배 기도를 마치고 대청봉에 올랐다가 소청 산장에서 차담을 사



왔다. 대단한 신심과 체력을 가진 송원 스님이 부러울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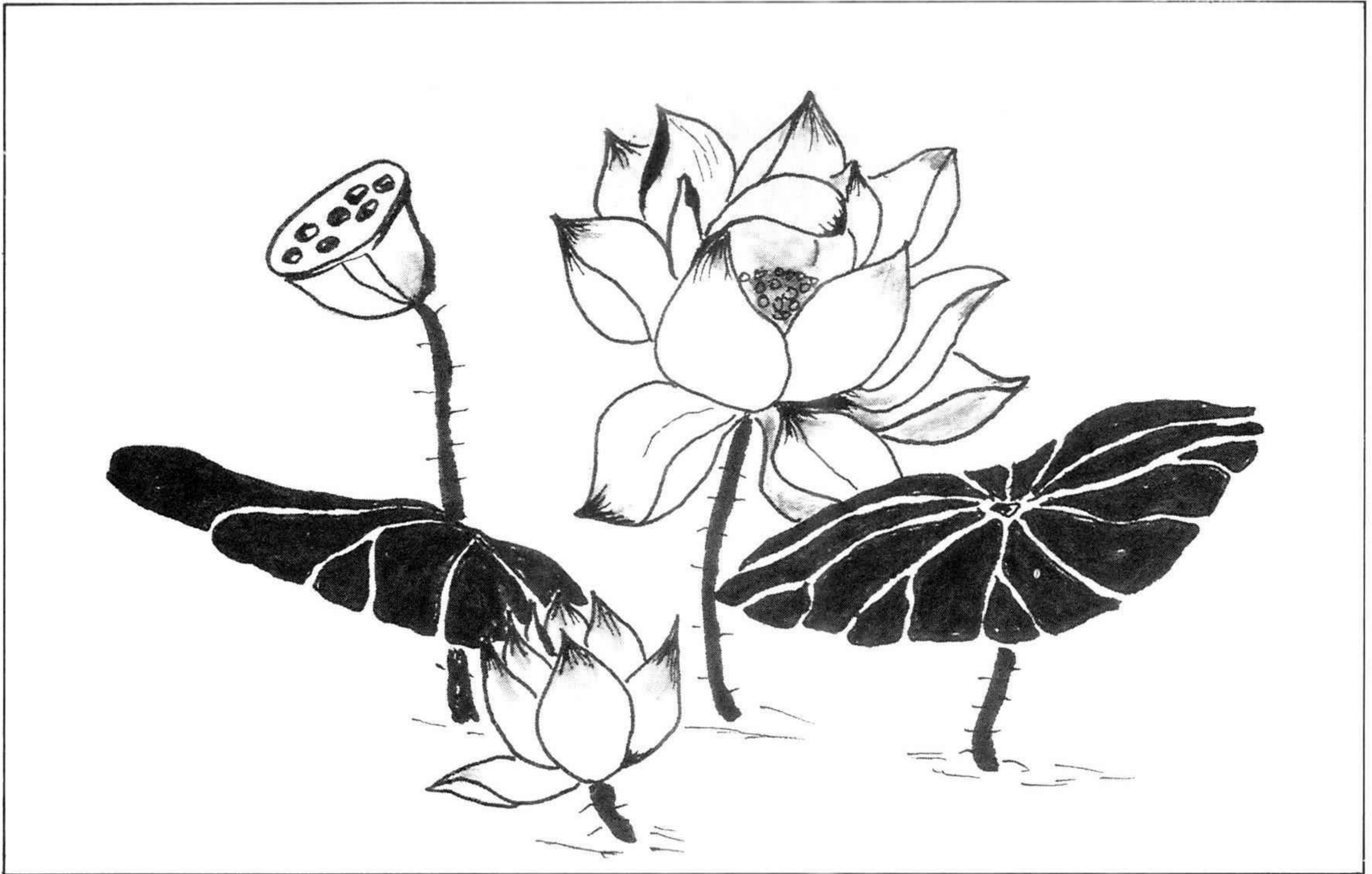
저녁에 자리에 앉으니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지 손도 대지 못하게 아팠다. 계속 마사지하고 지압도 했다. 도반 스님들의 걱정이 대단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생겼지만 '절하다가 병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부터 만져 보았다. 조금 아프긴 해도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속 절을 하자 고통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그런데 이번엔 머리가 복잡해져서 기도가 어려워졌다. 지난철의 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괴롭혔다. 한두 사람의 얼굴이 다가왔다가 사라진다. 속에서 열이 바쳤다. 갑자기 절이 빨라졌다. 그때 한참 방황하고 있을 무렵 강주 스님께서 상강례 시간에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라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짧은 법문을 하셨는데 나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적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다'고 하신 말씀도 잊을 수 없다.

숙가에 있을 때 인도에서 만났던 보살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살아가면서 많은 적 내지 천적들을 만나는데 속인들은 피해 갈 수 있지만, 출가 수행자는 그들을 포용해야 하고 그것을 공부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을 듣던 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화신으로 몸을 나타신다더니, 이 보살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가르침을 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나약해 보이던 그 보살님이 그날 따라 무척 위대해 보였고 경외심마저 생겼다.

내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또 분심이 일어난다. 무엇 때문일까? 수행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허깨비 놀음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참나(眞我)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삼천 배를 마치고 찬물에 목욕하는 기분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우리는 저녁 예불을 마치면 사리탑에 올라가서 설악산을 내려다보며 수행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부를 하는 데 도반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 진리로 다가왔다.

하루에 삼천 배 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어서 삼 일 동안 구천 배를 하고 삼 일째 되는 날 천 배를 더해서 만 배를 채웠다.

다음날 대청봉에 올라갔더니 등산객들이 고무신을 신고 올라온 우리들이 신기한지 다들 놀란다.

상원사로 가는 도중에 진부에 있는 부일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산채 백반에 나오는 반찬이 스물세 가지나 되고 맛도 또한 깔끔했다. 봉정암에서 먹지 못했던 영양보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걸어가는데 혼났다.

월정사에 들렀다가 상원사까지 걸어가는데, 아침부터 대청봉으로 해서 천불동 계곡으로 계속 걸어서인지 걸망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른다. 천호 스님이 혜

암 스님께서서 동관음암에서 수행하실 때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이 길을 걸어서 상원사 보궁에 참배하고 돌아가시기를 여섯 달이나 계속하신 길이라고 하는 바람에 힘들다는 말 못하고 있는데 보원 스님도 힘들기는 나와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보원 스님이 걸망이라도 신고 갈 차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니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차가 우리 앞에 서면서 타라고 하였다. 걸망만 실어 보내고 우리는 상원사까지 밤길을 걸어 올라갔다.

중대에서 해만 스님이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봉정암에서 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했다. 그런데 중대에서 보궁까지 올라가는 데 이삼십 분이 걸리고, 법당 안이 좁아서 절하기 무척 힘들었다. 다들 봉정암에서보다 힘들어서인지 기진맥진해서 천호 스님은 삼천 배를 밤 11시까지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자신에 충실한 모습들이 참 아름

보원 스님이 찰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녁 예불이 끝나도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잘못했다고 놀렸더니 삼경종이 칠 무렵 찰옥수수가 올라왔다. 다들 보원 스님의 기도에 효험 있다고 찬탄했다. 다음날 보원 스님이 말벌과 박치기를 했는데 보원 스님이 사천왕상으로 변해버렸다.

답게 보였다. 포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경험한 바로는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땀흘려 가며 절하는 모습을 보고 신도들이 신심을 내서 같이 따라 했다. 상원사 보궁에서 기도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상원사 선방에 참배를 했는데 문수동자상이 참 인상적이었다. 조선시대 세조대왕이 이곳에서 참회 기도를 하고 그 가피력으로 병을 완치했다 한다. 근세에는 한암 스님께서 이곳에 오신 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일주문 밖을 나가지 않으시고 큰방에서 대중과 함께 수행했던 도량이다. 아침 안개에 싸여 있는 오대산의 절경이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아침 일찍 천호 스님과 잘 아는 김처사가 승합차를 가지고 와서 범홍사까지 가는 데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도중에 정암사에 들러 백팔참회를 하고 사리탑에 올라가 참배를 했다.

탄광촌을 지나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일었다. 범홍사에서는 다리에 힘이 올라서인지 절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쉽게 되었다. 다른 스님께 여쭙보니 도량 자체가 힘이 있단다.

보원 스님이 찰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녁 예불이 끝나도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잘못했다고 놀렸더니 삼경종이 칠 무렵 찰옥수수가 올라왔다. 다들 보원 스님의 기도에 효험 있다고 찬탄했다. 다음날 보원 스님이 말벌과 박치기를 했는데 보원 스님이

사천왕상으로 변해버렸다. 범홍사에서 삼일 기도가 끝나고 보원 스님, 송원 스님은 송광사로 돌아갔다.

천호 스님이 나에게 여기서 일주일 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서 혼자 남았는데 도반 스님들과 같이 있을 때와 또 다른 기분이었다. 마지막 날은 철야 기도를 했다.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다가 자정이 지나자 다리도 아프고 해서 앉아서 목탁을 쳤다. 한참을 하다 보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고 있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가모니불 정근을 목이 터져라 했고 목탁도 크게 쳤다. 다음날 목은 쉬었는데 다행히 목탁은 깨지지 않았다. 보살님들이 기도를 잘하셨다고 인사를 하는데 칭찬인지 놀림인지 아리송했다.

다음날 통도사에 도착하니 마침 행자 교육중이었다. 나도 얼마전에 이곳에서 행자 교육을 받으며 신심을 가다듬었었다. 보궁 참배하고 율원 스님들을 만나 차담을 했는데 해인사 법전 스님이 참회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다.

기도를 잘했으면 자장암 금와 보살이 나타날 것이고, 잘못했으면 나타나지 않을 거란다. 그래서 영축산을 등반한 뒤 자장암에 가서 금와 보살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기도를 잘못된 것일까? 땀흘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송광사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금와 보살을 친견하지 못한 까닭을 알게 되었다.

다시 참회 기도를 해야겠다.

전쟁

노휴/사집



‘학생회는 전쟁이다.’

학생회가 전쟁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법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다. 말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도법사의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전쟁이라고 말하겠다.

학생회와의 전쟁은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외적인 전쟁은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다. 내적인 전쟁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가를 느꼈고,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도 현 불교포교의 실상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학생회를 맡은 지 한 달쯤 돼서부터였다. 일 년 맡을 것을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 막상 맡고 보니 다섯 달 동안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이라고 규정한 이상 이겨야 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겨 보지 못했다.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였고, 늘어난 것은 주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세타령과 하소연하는 것뿐이었다.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 떠올랐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면서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몇 번 만난 후에 물어 보니 ‘스님도 몇 달 하시다가 그만두실 텐데...’라는 말에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스님에게 불신을 갖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스님들이 책임감도 없고 귀찮으면 그만뒀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님들에게 ‘세상을 도피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을 좋아하고 나중에 스님들을 공경할 아이들에게 믿지 못할 존재로 비춰진 것은 전에 학생회를 맡은 스님들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능력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비춰진 스님들의 모습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최소한 3년 간은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3년 간을 버텨 나가려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겠지만 그중 제일은 정진과 인욕이 아닐까 한다. 특히 인욕은 자기밖에 모르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고 친해지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방법을 취하는 게 안정적이겠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과 상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써 보기로 했다.

수련회는 학생들과의 전쟁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3박 4일 간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므로 준비가 철저해야지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를 ‘부처님 그늘 아래서’라고 정하였는데, 아이들에게 부처님 그늘 아래서 휴식하면서 정진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였다. D-데이, 그러니까 수련회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였다. 요즘은 방학이라고 하지만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겹치거나 비가 오게 되면 참가율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올해는 몇 십 년 만의 가뭄이라 모두 단비를 기다렸다. 그런데 수련회 전날부터 태풍이 불기 시작해서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수련회 교재는 새로 만들었고, 기념품도 준비하였다. 대부분의 교재는 수련회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 십상이다.

이번에는 한쪽 면은 강의 내용을 적고 다른쪽은 여백으로 두어 기록을 할 수 있게 하여, 추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였다. 기념 티셔츠는 교재보다 더 중요하다. 교재는 혼자 보지만 티셔츠는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도안이 너무 커서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야 하고, 품질 또한 좋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져 걱정을 했는데 태풍을 뚫고 사자루에 모인 학생이 120명이나 되었다.

용기종기 앓아 있는 학생들을 보자 '이번 전쟁은 할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전쟁은 시작되었고 나는 승리를 자부하였다. 강의하실 스님들과 지도법사 스님들이 학생회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공양 후 나는 패배를 선언하고 사자루를 나왔다. 교재, 티셔츠 등의 무기보다 더욱 무서운 인내가 바닥나버린 것이다.

나는 서너 시간 도량을 거닐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며 반성을 하였다.

'승자만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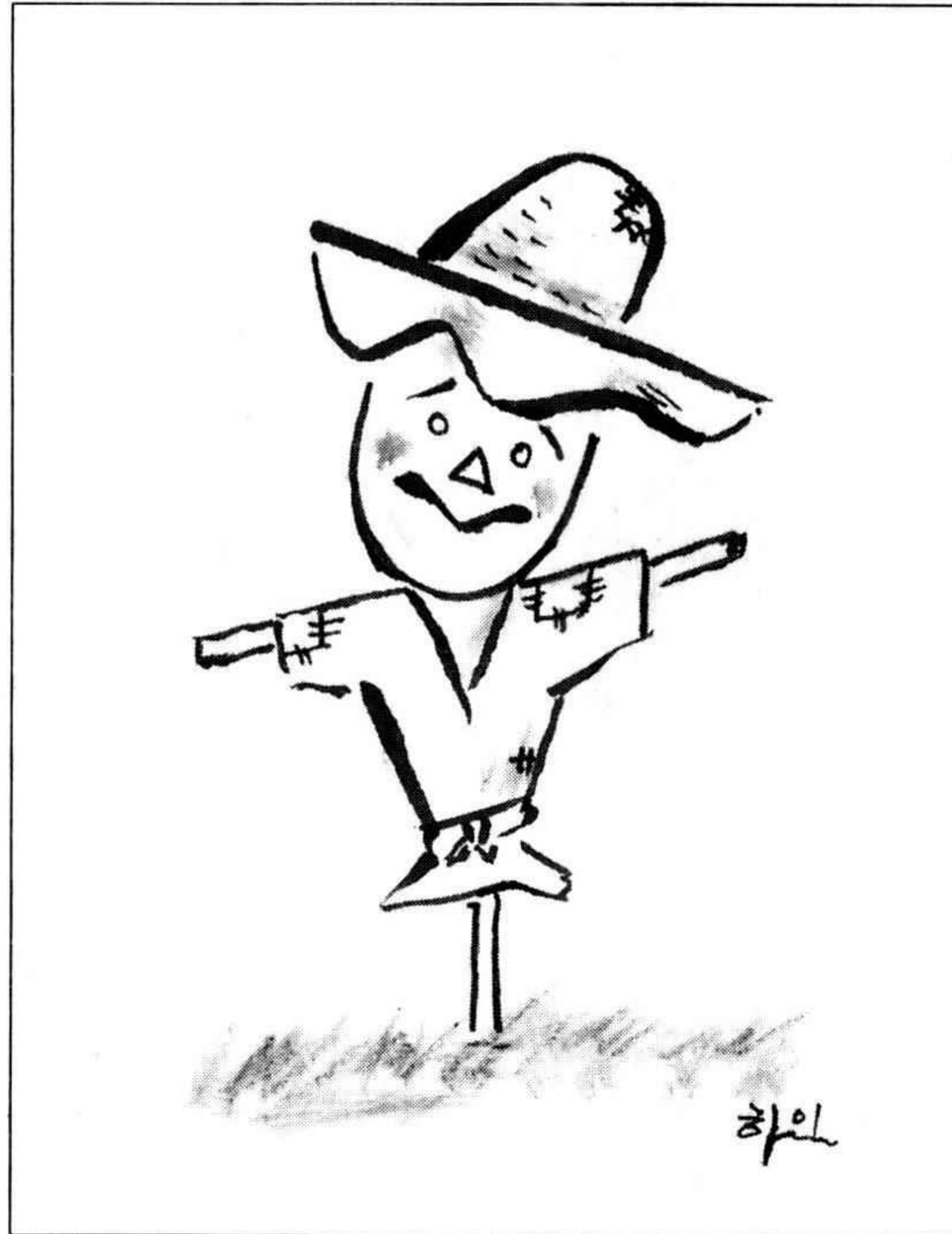
나는 다시 사자루에 들어가 패자로서 학생들에게 삼 배 참회를 하고 남은 전쟁을 치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겨야 할 상대는 지도법사인 내가 아니라 주변에 불교를 알지 못하는 친구, 가족 등. 그중에서도 학생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들이다. 새롭게 시도된 교재, 티셔츠, 교육 일

정 등은 수련회 소감문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보다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있다.

'한푼도 들어 있지 않는 통장.'

처음에는 수련회 동참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타종교는 일 년 내내 헌금을 받아도 말이 없는데 우리 절집은 일 년에 한 번이나 받을까말까한 불사금을 받을 때마다 말이 많다. 이것은 보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수련회 동참금을 안 받는 대신 저금통을 나눠주고 동전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모아진 돈은 복지기관에도 보내고, 학생회 운영기금으로도 쓸 예정이다. 이것은 확실히 모험이다. 몇 명이 보내줄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련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장에 몇 명의 아이들 이름이 찍히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학생들과 벌이는 이 전쟁, 아니 포교 불사가 꼭 성공할 거라는 것을...



도성당 시봉기

보원/사집



수계한 지 꼭 일 년 만에 사제를 받아 도성당에 계시는 은사 스님 시봉을 물려주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다.

도성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보름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노스님 시봉 차례가 되어 앞서 시봉했던 장행자를 따라 도성당에 갔다. 노스님께 인사 말씀을 여쭙자마자 노스님이 코를 쥐시고 노발대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중간중간에 ‘멍청이, 멍청이’라고 하실 때마다 장행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었다. 첫날부터 된통 진땀을 빼고 나서 돌

아오는 길에 장행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전날 아궁이에 군불을 땠는데 다 때고 나서 무심결에 불구멍을 막고 오는 바람에 불이 꺼져서 밤새 냉방에서 주무셨다고 그러시는 거라고 했다. 코를 쥐고 하신 말씀은 ‘너는 콧구멍을 막으면 살 수 있냐는 뜻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스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지 신기할 뿐이었다.

처음부터 긴장한 덕분인지 일주일 동안은 가끔 실수를 해서 ‘멍청이, 멍청이’ 소리를 듣긴 했지만 별탈 없이 지나갔다.

그날은 사시 공양 후에 감자 캐는 울력이 있어서 행자들과 함께 울력을 하고 ‘행자폭포’라고 부르던 불일폭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장행자가 “장행자님, 시간 됐어요 얼른 도성당에 가봐요” 해서 헐레벌떡 뛰어나와 시계를 보니 시봉 시간인 3시 30분이 다 되가고 있었다. 고무신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게 뛰어갔지만, 5분쯤 늦어서 벌써 노스님이 손수 가마솥을 닦고 계셨다. “스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행주를 받으려 하자 손을 뿌리치시며 “저리가! 내가 할꺼...” 하시며 떼미시는 것이었다. 노스님은 막무가내로 당신께서 솥을 닦으시고, 물을 붓고 불을 때시고는 청소까지 다 하셨다. 나는 스님 옆에 멀거니 서 있다가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날은 10분쯤 먼저 도성당에 갔더니 노스님께서 마당에 난 풀을 매고 계셨다.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호미를 받으려니까 “가! 오지 마라니까 왜 와 ...” 하시며 쳐다보시지도 않으셨다. 마루 밑을 살펴보니 호미 한 자루가 보여서 시골 출신의 장기를 살려 호미질하는 손이 안 보이게 풀을 매나갔더니, 어느새 노스님께서 옆으로 오셔서 “하! 잘 맨다. 하! 잘 맨다. 행자, 고향이 어디여?” 이때부터 겨우 화가 풀리셔서 보름 간의 노스님 시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강원에 입방해서 곧 도성당에 계시는 은사이신 유나 스님을 시봉하게 되었다. 사형 스님께서 청소하고 군불 때는 것 등 시봉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지만, 웬지 은사 스님 앞에만 가면 온

몸이 굳어져서 비질도 잘 되지 않았다.

본래 속가에서 막내로 자라나서 형, 누나들이 하는 것만 보았지 걸레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고 자란 터라 더욱 어색했을 것이다.

시봉한 지 한 달 쯤 지나서 스님방 청소를 하다가 문갑 위에 앉은 먼지를 털다는 게 그만 자그마한 불상을 쳐 방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두동강을 내고 말았다. 인도에서 모셔 온 부처님이라

고 은사 스님이 무척 아끼는 불상이었는데 머리 한 쪽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때마침 스님이 안 계셔서 엉겁결에 불상을 들고 시자행자실로 달려가 접착제로 붙이니 감쪽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았다. 다시 제자리에 모셔 놓으려고 달려가니 스님께서 방안을 여기저기 살피고 계시다가 “보원아, 너 불상 못 봤니?” “스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불상을 드렸더니 받아 보시고는 “괜찮구나.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셨다.

이때부터 더욱 긴장이 되어 도성당에만 들어서면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그날은 난화분에 물을 주려고 방안에서 들고 나오는데 소매가 문고리에 걸리면서 화분이 마루바닥에 나가떨어졌다. 얼굴이 벌개져서 마사토를 주워 담고 있는데, 방안에 계시던 스님께서 나오셔서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그 화분 오천원이면 산다” 하시고는



바닥의 마사토를 주워 담으시고, 접착제로 화분 조각을 붙이시는 것이었다. 이때 하필 보경화 노보살님과 사평 보살님이 와서 달아오른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부산에 사는 보살님이 도자기 세트를 사오셨는데, 그중에 크고 넓적한 청자가 하나 끼어 있었다. 그동안 퇴수 그릇으로 써 오던 목발우가 틈이 벌어

져 물이 샌 적이 있던 터라 스님은 마침 잘 되었다며 그 도자기로 바꾸시는 것이었다. 이 청자 대접이 고급스러워 보일 뿐아니라 미끌미끌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어찌나 조심이 되는지 퇴수를 비우고 새로 물을 떠올 때마다 끌어안고 다니다시피 했다.

하룻밤은 그 청자를 깨먹고 영영 우는 꿈을 꾸다 놀라 깨어나 쓴웃음을 짓다가 잠든 적도 있었다. 예불 때마다 ‘부처님, 사고 좀 그만 치게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가피가 있었던지 이번에 말짱한 퇴수 그릇을 사제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사소한 일로 아랫반 스님을 나무라는 나 자신을 보며 흠칫 놀랄 때가 있다. 은사 스님은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는 물건을 두 번씩이나 깨뜨린 나를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하시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별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을 꾸짖을 수 있단 말인가.

7월 10일 : 하얀거 반겨제를 맞아 모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고인돌 공원에 들러 선사 시대 유적을 돌아보며 잠깐 땀을 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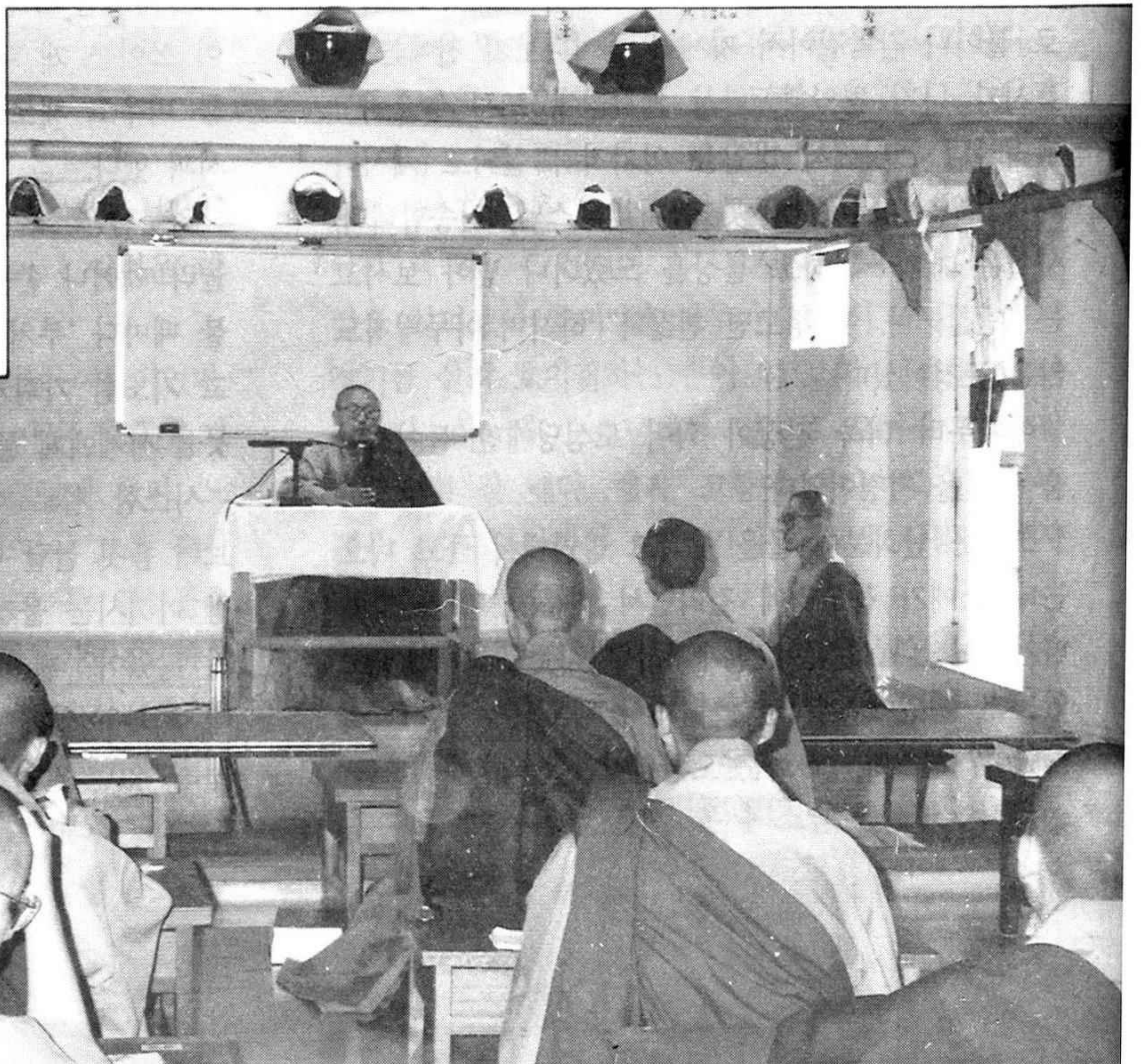
7월 25~28일 : 25, 27일 이튿간 청오 스님(실상사 주지)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법인사(함양군 안의면)에서 10여 년간 어린이 포교를 하며 거둔 눈부신 성과 뒤에 숨겨진 눈물겹고 치열한 경험담은 수행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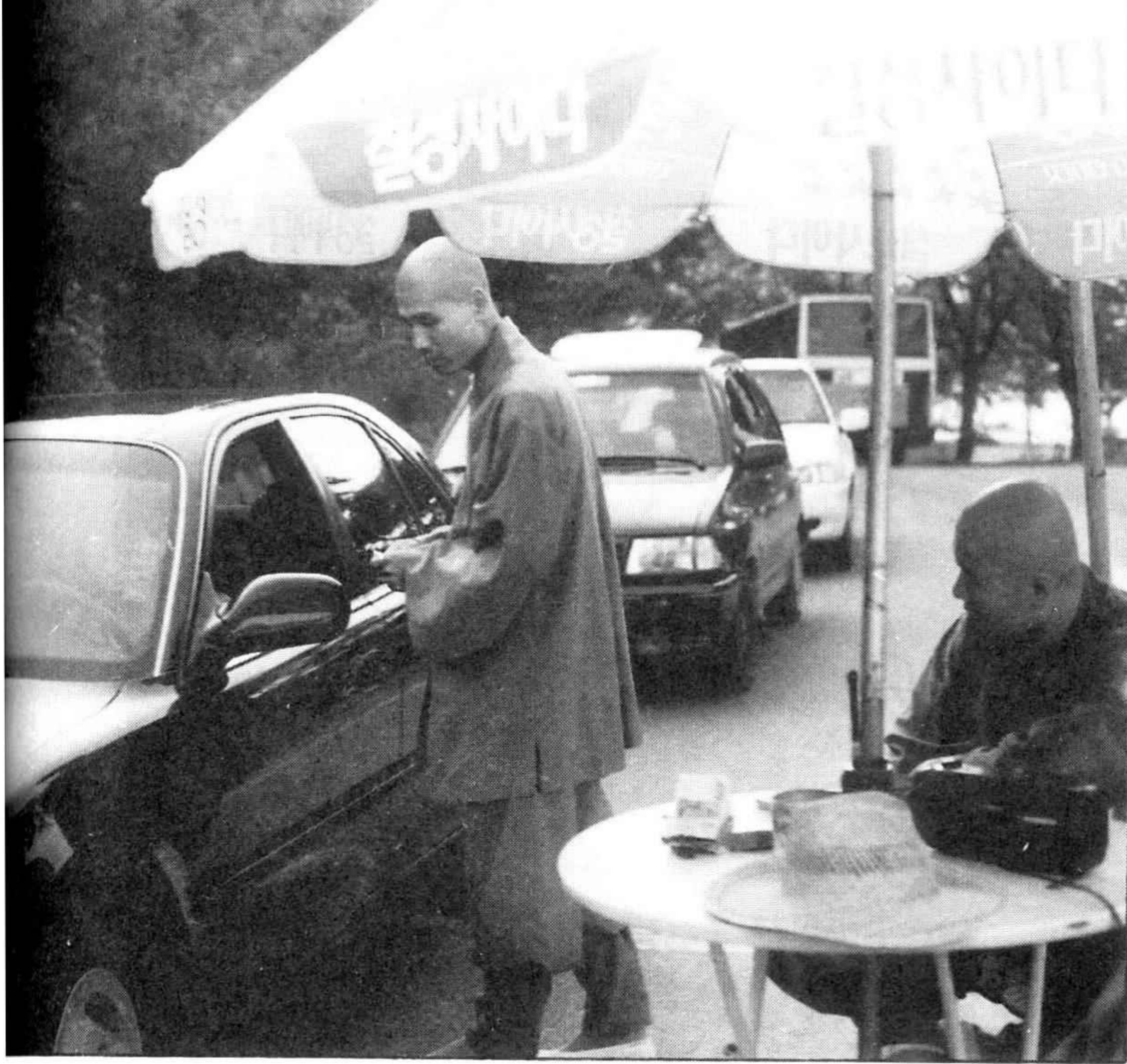
28일 저녁에는 '현장 스님(대원사 주지)과 함께 떠나는 시네마 천국, 슬라이드로 보는 티벳 복교' 상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티벳을 여행하시고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돌아오신 스님의 생생한 평론과 재치 넘치는 해설은 무더위에 지친 학인들에게 가슴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7월 30일 : 수선사 선원 스님들과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한바탕 역전을 치른 끝에 축구는 비기고, 소프트볼은 강원이 이겨서 선원에서 강원에게 대승 공양을 냈습니다.



화보로 본





8월 11~14일 : '부처님 그늘 아래서'라는 주제로 3박 4일 간 중
고등학생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잠시나마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고 참선도
배우면서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보고 마음을 밝히는 아이들의 모
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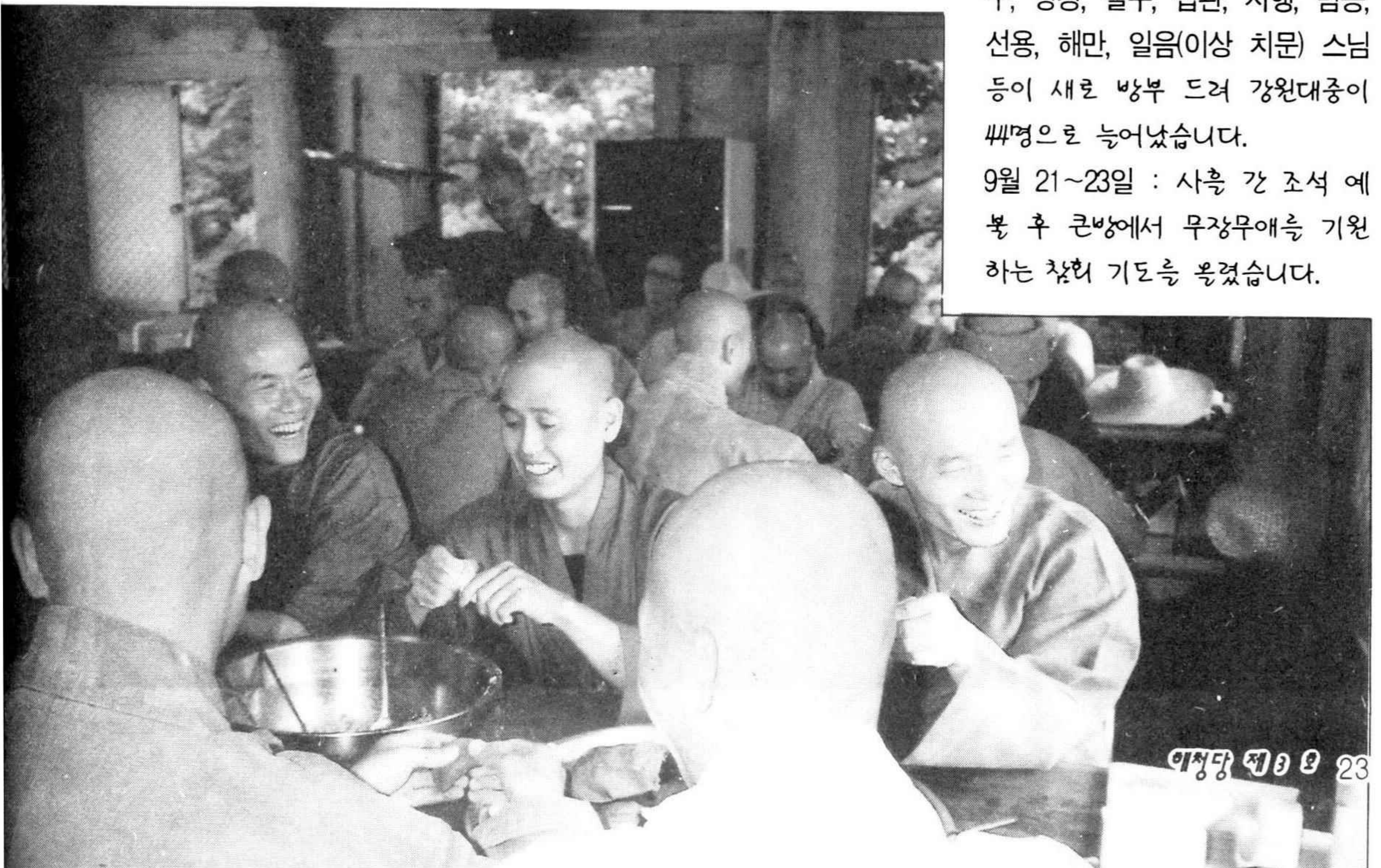
8월 14~21일 : 우각본적 및 하얀
거 해제를 맞아 지장전에서 철야
지장기도를 올렸습니다. 21일 하
얀거 해제에 맞춰 9월 16일까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9월 19~20일 : 추석을 맞아 역사
흔날 오후 전 대중이 선영당에 모
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추석날엔
주암 중학교에서 선원, 강원, 후
원 세 팀으로 나누어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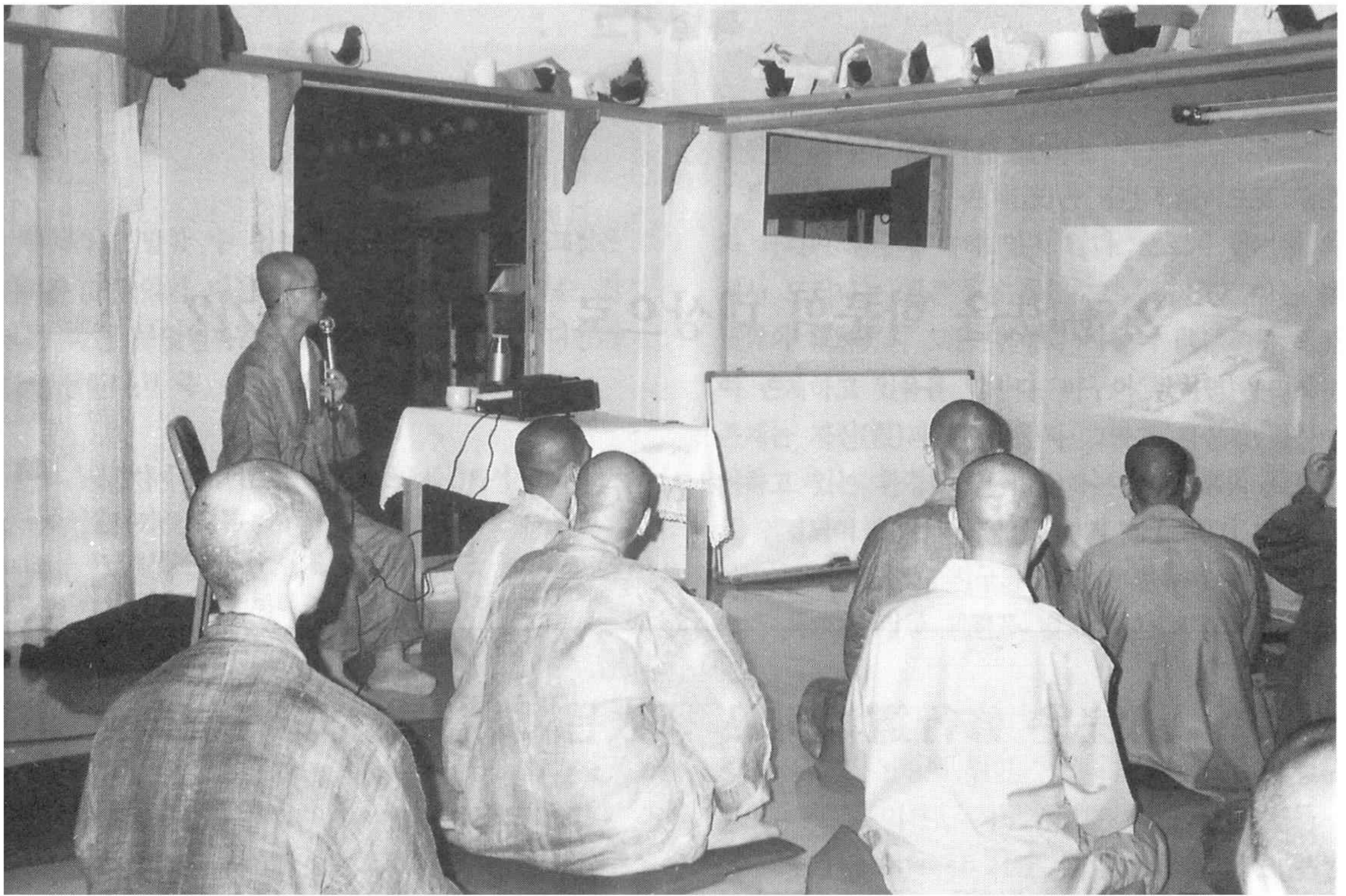
9월 23일 : 한 달 간의 방학을 마
치고 산척 경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묵(사집), 선주, 보현, 도강, 연
수, 영경, 설주, 법관, 지행, 범능,
선용, 해만, 일음(이상 치문) 스님
등이 새로 방부 드려 강원대중이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월 21~23일 : 사흘 간 조석 예
복 후 큰방에서 무장무애를 기원
하는 참회기도를 올렸습니다.

강원 소식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지운/강주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は 求道하는 修行者다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 ※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2) '공부' 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は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學問이란 의미는 하나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계통화시키고, 조직화시킨 지식을 말하며 단순한 신앙, 직관, 체험 등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체계가 선 지식이 학문이며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말하자면 인생이나 세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관을 통한 체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식에 기초한 과학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知的 행위가 바로 학문이다.

그러나 佛敎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宗教이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사건이란 모든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관을 통한 체험이지 학문을 연구하여 얻어내 지식의 체계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2)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雜阿含 緣起法經>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¹⁾ 즉

“세존이시여, 이른바 緣起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緣起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 여래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法의 界는 常住한다. 저 如來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等正覺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열어서 드러내어 보이시나니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無明을 緣하여 行이 있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그리고 無明이 滅하기 때문에 行이 滅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멸하느니라”

<연기법경>에 나타난 깨달음의 내용인 “法”은 첫째 발견, 둘째 전존재의 연기적 상호관계, 세째 전체를 본다(無分別智)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발견’이라는 말은 楞伽經에서 말한 ‘若如來出世 若不出世 法界常住’와 같이 나와 남이 만든 것이 아님을 말한다. 法(다르마)은 如來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以前이나 涅槃 以後에도 常住하는²⁾ 진리다. 이 진리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것은 無始時來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시래의 존재(法)는 不生不滅이므로 창조도 파괴도 아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오로지

발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 無始時來의 존재(法)는 不生不滅이므로 창조와 파괴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오로지 발견에 의해서 드러나는 전존재는 緣起 그 자체이다. 이는 物質界와 精神界의 모든 현상과 사물이 關係網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자신(根)과 환경(境)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인식(識)하는 이 三者의 화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땅 물 열기 바람 대기 빛과 생물, 인류를 포함한 지구와 그리고 인류가 갖고 있는 知能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전존재의 모습이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의학, 화학, 공학 등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의 총결집으로 내놓은 가이아(Gaia) 이론은 지구 자체가 살아 있는 생물체이며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처럼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서로 연계됨으로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브록은 지구 자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생물종은 생존하지만 그것에 역행하는 생물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³⁾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인류의 知能이라고 말한다. 오직 인간만이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존재의 상호의존을 파괴하여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여 모든 현상과 개개의 사물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상호의존하며, 시간적으로 변화무쌍한 흐름 안에서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우주만물은 기계적이며 정태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며 역동적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면 반드

1) <雜阿含經>卷第十二(二九九) “世尊 謂緣起法 爲世尊作 爲餘人作耶 佛告比丘 緣起法者 非我所作 亦非餘人作 然彼如來出世 及未出世 法界常住 彼如來自覺此法 成等正覺 爲諸衆生 分別演說開發顯示 所謂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謂緣無明行 乃至純大苦聚集 無明滅故行滅 乃至純大苦聚滅” (大正藏 第二卷 p. 85 中)

2) 楞伽經會譯卷三之上 p. 十四上

3) 조너선 위너 지음/이용수·홍욱희 옮김 “100년 후 그리고 인간의 선택” 김영사 p.306—342 참조

불교의 경전은 깨달은 이의 체험을 언어화, 문자화한 것이다. 깨달음을 철학의 체계화된 지식에 바탕으로 하는 한 합리적인 인식으로 파악한다든지 논리로서 규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佛法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 창조와 파괴는 필연적이다. 이는 기계적이고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경고한 것과 같이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카프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다시 말해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기존의 감수성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 모두를 완전히 갱신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론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고 있는 뚜렷한 조짐이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관의 전적인 변환은 아마 앞으로 몇십 년 더 걸려야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은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라는 면에서 인류사상 유례가 없다. 부처님께서 깨치신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진리는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과학자들도 모든 존재의 緣起性을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발견하는데 이르렀고, 이러한 발견은 한결같이 인류가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전환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전환이 실현된다면 여태껏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문화적 변화보다 엄청난 차원의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세째, 전체를 본다(無分別智)는 말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에 있다. 오로지 전체로

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의 전체적 不二性을 보려면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를 보려면 어떠한 전제되는 조건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는 안된다는 말이다. 비록 과학에서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자현미경이나 가속기 등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 것이다. 이렇게 규명된 본질은 知識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체험은 결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교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도구는 배제한다. 심지어 자기가 이제껏 쌓아온 학문이나 이념적인 것, 말하자면 온갖 지식을 전제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마디로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를 인류의 知能이라고 말하였듯이 전존재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망상이다. 생각, 꿈, 환상 등 모든 종류의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이러한 마음은 生滅하는 心으로써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없다. 단지 학문의 차원에 머물 뿐이다.

능엄경에서는 깨침의 방법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아닌 不動心이야말로 전체를 보는, 깨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한다. 대혜스님도 마음이 부동이 되면 마음의 여러가지 기능이 중지되어 모든 존재에 대한 판단 중지가 일어난다고

4) 김재희 엮음 “신과학 산책” 김영사 p 19.

어느 선까지는 학문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깨침에 이르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문은 깨치지 못한 사람을 깨침에 이르게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깨달음이란 수행을 통한 체험으로만 가능하다.

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에도 매달리지 않는 깊은 三昧의 침묵이 계속된다. 마음이 투명한 유리처럼 남아 있게 되고 그 투명함, 그 맑음 속에서 존재의 본질은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존재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는 人爲的이다. 人爲的인 사고와 행위의 바탕은 모든 존재를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기계적 구성체로 간주하여 전존재의 상호의존이 아닌 작은 요소로 분해하고 원자로 환원시켜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還元主義는 근대 합리주의, 경험주의를 토대로 한 모든 실증적 과학주의의 객관적이고 실증 가능한 사실만을 진리로 취급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는 모든 존재의 총체적 시각을 상실케 한다. 전자현미경으로 사물을 볼 때 부분적인 것은 자세히 관찰 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관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대자연의 삼라만상에서 각각의 현상과 사물을 구별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용하다. 그러나 이들을 구분시키는 절대적인 기반이라는 것이 생각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흰종이에 구름이 흐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흰종이와 구름과의 상호관계를 보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개체로 인식한다면 이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와 관련이 있고 나무는 물과 관련이 있고 물은 구름과 관련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흰 종이 속에서 구름을 본다⁵⁾는

것은 바로 전체를 보는 통찰력, 즉 전존재를 분리시켜보지 않는 無分別의 智慧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작은 개체 하나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종이와 구름을 별개로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보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들을 각각 독립된 個體로 구분하는 한편,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맞서 있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시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分別心으로 잘못된 妄想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친다. 이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외관으로 구별하고 量的 大小로 분별하여 측정하고자하는 지성이야말로 똑똑함이 아니라 어리석음, 곧 미혹이다. 진정 극복하여야 할 정신의 혼란상태이고 이를 無明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전체를 보는 무분별의 직관으로 체험한 진리를 언어화한 것이다. 학문의 합리적인 인식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체계와는 차원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불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문과 같이 합리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직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은 진리를 표현하여 상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설명해 주기 위해 발달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5) 一中一切 多中一 一微塵中含十方

불교는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에 의한 깨달음에 있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楞伽經에서 부처님께서 四十九年間 법문을 즐기치게 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기 한마디도 說한 적이 없다⁶⁾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말씀은 남이 만들지도 아니했고 당신 자신이 만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주의주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함허스님이 “부처님께서 說하신 바의 가르침은 단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편일 뿐이다”⁷⁾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문자 방편을 “응당 버려야 할 것이니 굳게 지켜서 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세계에 들어 갈 수 없다”⁸⁾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와 학문과의 차이는 학문

은 생각(有心)에 있고, 佛法은 無心에 있다. 학문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사물을 분리시켜 분별하여 파악하고 불법은 전존재를 분리시키지 않고 무분별로 파악하는 점이 다르다.

불교의 경전은 깨달은 이의 체험을 언어화, 문자화한 것이다. 깨달음을 철학의 체계화된 지식에 바탕으로 하는 한 합리적인 인식으로 파악한다든지 논리로서 규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佛法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선까지는 학문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깨침에 이르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문은 깨치지 못한 사람을 깨침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통한 체험으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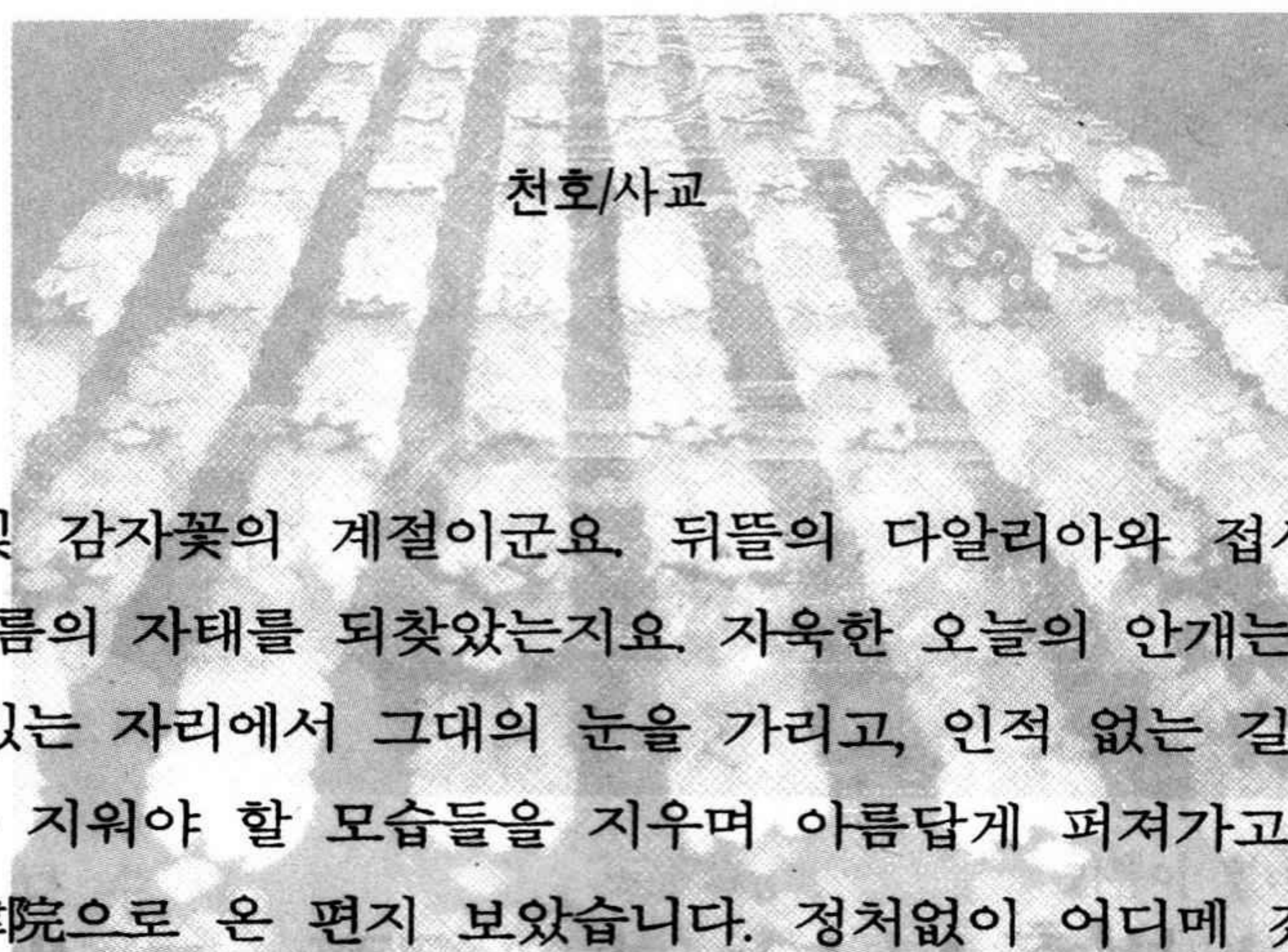


6) “如世尊所說 我從某夜得最正覺 乃至某夜入般涅槃 於其中間 乃至不說一字 亦不已說當說 不說是佛說”(楞伽經會譯卷三之上 p. 十三上)

7) “佛所說法 只是入道方便”(金剛經五家解上 說誼 p. 六十三 下. 木版本)

8) “依方便而入道則可 守方便而不捨則不可 方便尚應捨離 此離亦何所存”(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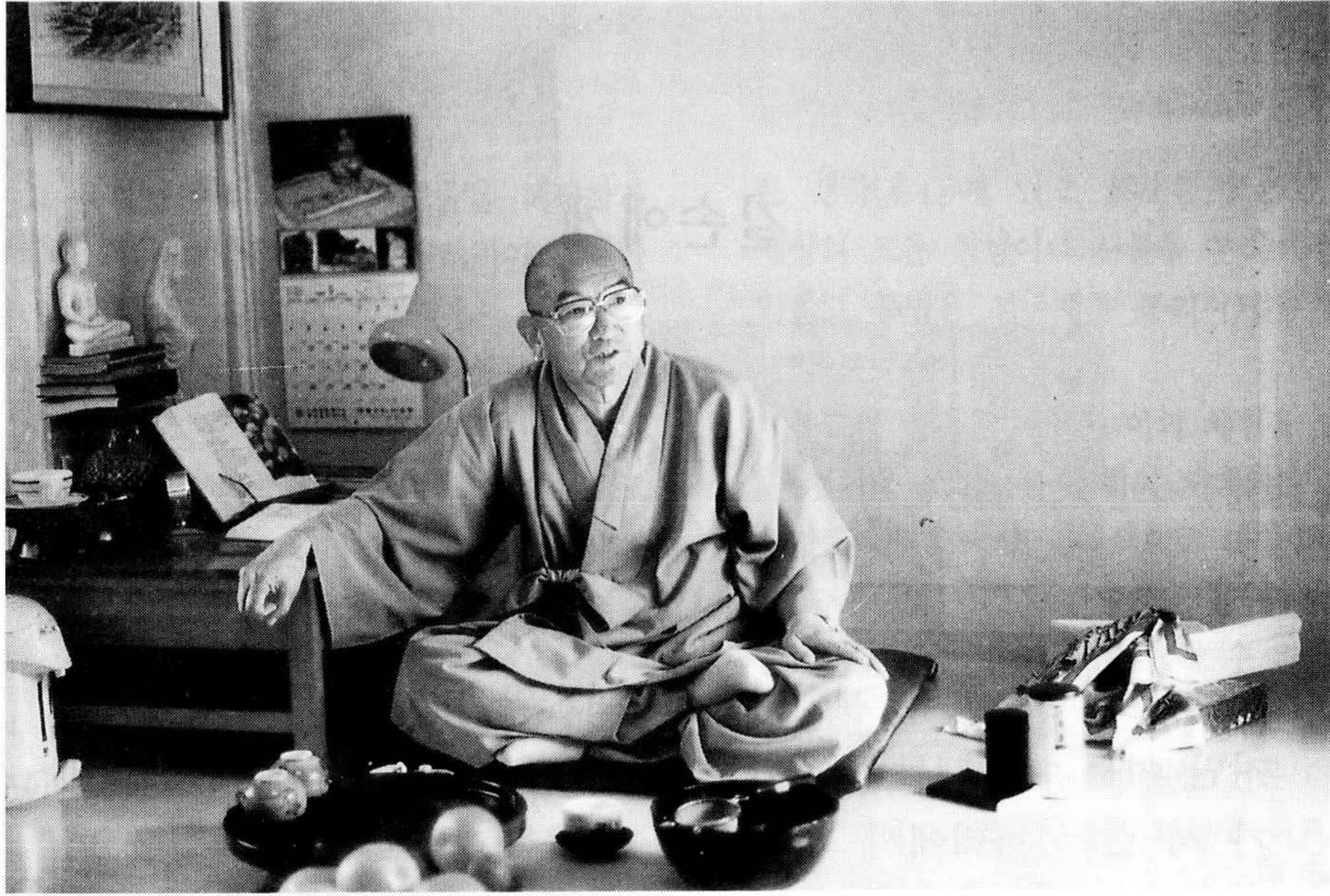
길손에게



천호/사교

보랏빛 감자꽃의 계절이군요. 뒤뜰의 다알리아와 접시꽃은 지난 여름의 자태를 되찾았는지요. 자욱한 오늘의 안개는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의 눈을 가리고, 인적 없는 길을 따라 모든 지워야 할 모습들을 지우며 아름답게 펼쳐가고 있는지요. 律院으로 온 편지 보았습니다. 정처없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더군요. 좋은 여행이었는지요. 저도 그대가 걸어야 하는 진실의 길, 그대가 지켜보아야 하는 가없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실을 등지지 않을 때 진실의 길에서는 결코 다시는 길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걷고 싶거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러 양손에 흘러넘치는 눈부신 강물을 마시고 싶을 때 이 산으로 오시지요. 얼굴을 씻을 때 손등을 흐르는 물기가 서늘히 푸른 핏줄을 타거든 이 산으로 오시지요. 순조로운 가을에 들꽃이 지듯 바람이 부는대로 다가와 주시지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 속에서 철따라 피고 지고, 무르익는 감처럼 기다림은 스스로 깊어서 붉게 변해갈 무렵이 그때가 될테니까요.



법흥스님 < 戒律綱要 > 펴내



법흥 스님(송광사 주지, 유나역 임현 동당)께서 편역한 <戒律綱要-계율의 재조명>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전계대 화상 일타 스님, 동국대 법해 스님의 옥고와 일본 불교학자들의 중요 계율 관계 논문을 번역하여 묶은 이 책은 일부 계율을 소홀히 하는 현 승가 풍토에 울장 정신으로 돌아가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

에서 스님은 책이 나오자마자 개혁회의 총무원에 300권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책을 법 보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좌가 염불이나 하고 다닌다는 비난까지 감수해 가며 천도재 요청이 있을 때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는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제작년에도 <禪의 세계>를 엮어 법보시하신 바 있는 스님은 동안거를 산내 암자인 인월암에서 정진하시기로 하셨다며, 학인들에게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길 잊지 않으십니다.

행자 교육원의 하루

도강/치문

딱! 딱! 딱!

힘찬 죽비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뜬다. 이불을 개고 정량으로 가려 하니 오늘은 유난히 정량으로 앞서 가는 행자님들이 많아 보인다. 세면을 먼저 하려고 수각장으로 내려갔다. 기다려서 볼 일을 보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수각장 안에도 비좁은 공간에서 행자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마음마저 바빠지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몸도 그런 행자님들의 무리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발우 공양은 스님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 사항이라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습의사 스님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하고 또한 행자님들도 힘들어하면서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에 열심히 잘 듣는 것 같다.

공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천수로 그릇을 씻다가 문득 행자 때 공양간에서 들은 전 방장 스님이셨던 구산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스님은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양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손수 찍어서 드시고 행자에게



도 먹이셨다고 한다.

시주의 은혜가 지중함을 잘 아시고 스스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이신 스님, 그 이후로 송광사 공양간에는 한 알의 밥알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똑! 똑! 똑! 똑!’

정량은 이미 꽉찼다. 아차 하면 오늘도 실패할 것 같다. 어제 실패했는데... 강의 끝난 후의 10분으로는 약간의 변비 증세가 있는 내게 일을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이 있네. 탐진치 삼독도 이같이 버리세.’

딱! 지심귀명례 서가모니불

딱! 지심귀명례 서가모니불

죽비소리에 맞춰 참회를 한다. 그러나 자꾸만 밀려오는 번뇌, 망상, 그리고 다리의 통증,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찾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더 산란하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편히 주무시고 별점 3점이 되는 행자님은 삼경종이 울린 후 설법전에서 참회하십시오. 그럼 다른 분들은 편히 쉬시고 내일 봅시다” 되돌아가는 습의사 스님의 뒷모습이 무척 고맙게 느껴진다.

뎅- 뎅- 뎅-

이생에 나와 맺어진 수많은 인연들, 선연이든 악연이든 반드시 연꽃을 피우는 거름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한다.

송광사 스님들

종지/치문



1

해방 후 해인사에 가야총림이 개설되어 초대 방장으로 효봉 스님을 모셨다. 해인사로 가시는 날 삼일암에서 짐을 꾸리시다 잠시 나갔다 오신 스님이 뭔가 열심히 찾으시는 것이었다. 시자를 보는 손상좌가 무엇을 찾으시냐고 여쭙니, 손바닥만한 형겔조각 두 개 못 봤냐고 하셨다. 너무 낡아서 내다버렸다고 하자 당장 찾아오라고 하시며 “그것이 어떤 물건인데 내가 함부로 버리느냐. 내가 금강산을 떠나올 때, 우리 스님 은사이신 석두 스님이 먼길 가는데 걸망 끈에 어깨 진무른다고 밤새워 기워 주신 것이야”.

2

석두 스님(1882 ~ 1954)이 노환으로 운신을 못하게 되자 효봉 스님이 손수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었다. 하루는 손주 시봉이 요강을 비우자 ‘우리 스님은 내가 모신다’며 꾸지람을 하셨다. 효봉 스님의 사제되는 계봉 스님은 요강을 비울 때마다 대변을 찍어 맛을 보곤 하셨는데 효봉 스님이 그 이유를 묻자 병자의 똥이 쓰면 임종이 가깝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3

효봉 스님이 삼일암에 계실 때 계행이 바르지 않던 한 노스님이 입적해서 다비를 했는데 사리가 나왔다고 상좌들이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효봉 스님은 삼일암으로 그 상좌들을 불러 상위에 깨끗한 천을 깔더니 그 위에 사리를 올려놓으라고 하셨다. 사리를 올려놓자 효봉 스님은 사리에 시선을 모으고 한동안 삼매에 드신 듯 했는데, 순간 사리가 녹아버리더

니 고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효봉 스님의 손상좌로 이십여 년 시봉하셨던 원명 스님(대구 관음사 주지)이 직접 보신 일이다.

4

하루는 구산 스님(조계총림 초대 방장. 2527년 입적)이 공양간에 나타나 구석구석 살피시는데 마침 수채구멍에 밥티가 몇 알 떨어져 있었다. 구산 스님은 바늘을 꺼내더니 밥티를 하나하나 찍어 잡수시는 것이었다. 이후로 공양간 바닥에 밥티 흘리는 행자가 없었다.

5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구산 스님이 도량을 한바퀴 살피시는데 요사채에서 이상한 김새가 느껴졌다. 그 방의 문을 활짝 여니 스님과 보살이 손을 잡고 있다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구산 스님은 말없이 방문을 닫고 가시는 것이었다.

그 스님은 명석말이 당할까 산문출송 당할까 속이 바싹바싹 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 스님은 가사 장삼을 수하고 삼일암으로 가서 구산 스님께 용서를 빌고, 걸망을 싸서 스스로 송광사를 떠났다.

6

구산 스님이 광양 백운산 상백운암에서 공부하실 때 이야기다. 가을이 깊어 겨우살이 준비를 하는데 그 해는 하필 흉년이 들어 탁발해 온 양식이 쌀, 보리 합쳐 겨우 한 말이 넘었다. 텃밭에 심

은 무를 뽑으니 한 가마쯤 되어서 어떻게든 그것으로 겨울을 나기로 결심하고 정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겨울을 반도 넘기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 무로 양식을 삼았는데 그것마저 몇 개 남지 않게 되자 무를 다 먹어 없애기 전에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고 용맹 정진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수에 사는 한 보살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불보살님이 나타나 백운산 상백운암에서 도인 스님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가보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그날 바로 보살이 음식을 장만해서 눈길을 헤쳐 상백운암에 이르니 한 스님이 바위에 좌복을 깔고 앉아 계신데,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참새가 어깨에 앉아 누비를 쪼아 숨을 파먹고 있었다.

7

광훈 스님(전 원각사 주지, 2537년 입적)이 송광사에서 재무 소임을 보실 때 광주에 불일이 일어나갔다. 금남로를 지나가는데 기독교 전도사가 따라붙어 쫓아오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쳐대는 것이었다. 스님이 발길을 멈추더니 하시는 말씀. “회계를 하라고요 나는 송광사 재무란 말이오 당신이나 회계하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마침 회계 자리가 비어 있으니.”



수련회 T-셔츠 도안해주신

홍미경 보살님

올 여름 송광사 불일서점의 최고 히트 상품은 뭐니뭐니 해도 여름 수련회 기념 T셔츠였습니다. 해청당 기금 마련을 위해 만든 이 T셔츠의 간결·깔끔하면서 불교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디자인을 누가 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반야화(홍미경) 보살님입니다. 효성여대에 다니던 시절부터 대구 관음사 학생회 지도교사로 일했고, 졸업 후 해인지 편집기자를 거쳐, 관음지(대구관음사) 초대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선화를 공부했고, 지금은 대구 대봉동에 홍미경 화실을 열어 창작에 몰두하면서, 관음지에 삽화를 그리는 틈틈이 불교 잡지에 원고를 투고하고 있습니다.

스님, 다음엔 천팔십 배 해요

신수미/순천 여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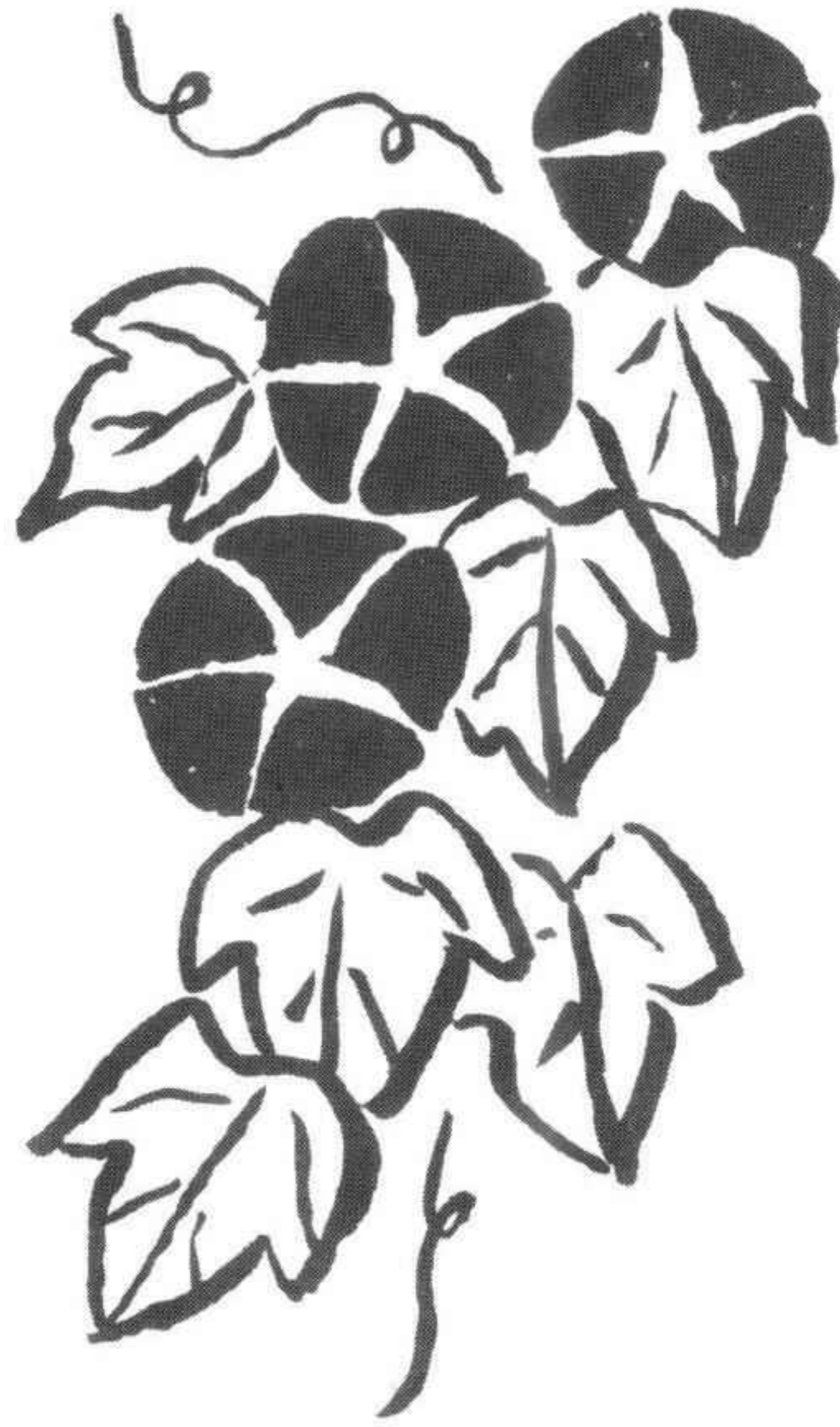
내가 목우회에 들어간 것은 솔직히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물론 첫째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었고 두 번째가 선배님들과의 만남, 세 번째가 '수련회'였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수련회에 대한 선배님들의 체험담과 함께 우리의 기대도 부풀어 갔다. 지겨운 보충수업, 학원수업에 시달리기를 몇 주, 수련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돌파구였다.

폭풍이 와서 밤새워 걱정을 했지만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에 수련회는 무사히 진행되었다.

수련회는 우리 지역(그러니까 무루지) 말고도 개인 참가도 많았고 다른 지역 사찰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사자루를 짝 메운 사람들을 보니까 웬지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았다.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수련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했던 수련회는 친구를 사귀며 놀고, 레크리에이



션하고,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교회 다니는 친구의 영향이 컸다) 묵언으로 시작해서 뻑뻑한 강의,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정말로 뭔가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항상 먹는 밥과는 뭔가 달랐던 절밥과 발우 공양. 고춧가루가 알뜰하게 물 위에 떠 있어서 결국 사이좋게 양보하면서 물을 나눠 마

시기는 했지만...

속세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9시 취침, 새벽 3시 기상은 좀 어려웠다.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 잠을 좌선 시간에 보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왕 온 김에 열심히 해야지. 새벽 세 시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좌선, 강의, 또 강의.

두 시간 강의에 길어야 20분 휴식, 화장실에 가더라도 시계를 봤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주 느낀 것은 '예절'의 필요성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음엔 수련회가 이런 방식일 거라는 것을 몰랐을 테지만, 절이니까 행동이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다. 법당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나방을 손으로 쳐서... 난 모기도 안 죽이려다가 물려서 손이 퉁퉁 부었는데.

묵언을 하진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좀 낮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나도 말을 적게 한 건 아니지만(떨리는군), 그래서 정왜 스님이 내리치시는 죽비가 아주 멋있어 보였다. 맞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그런 실수들이 노후 스님께 삼 배를 하도록 이끌었을 때 정말 스님께 죄송했다. 다 우릴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고작(스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저녁 예불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 법

고, 범종 소리가 송광사에 울려 퍼졌고 대응전을 울리는 스님들의 염불 소리. 스님들은 목소리가 다 좋으신 걸까.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할 순 없지만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굉장했다.

우린 다른 수련회와는 다르게 삼백 배를 했다. 천팔십 배가 아니라 서운하긴 했지만 그 동안 지친 다리는 삼백 배에도 후들거렸다. 땀이 얼굴과 온몸으로 흘러내리고 좌복에는 땀자국이 생겼다. 하지만 다 마쳤을 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느끼는 뿌듯함.

밤을 새운 캠프파이어. 별은 크고 정말 가깝게 떠 있는 것 같았다. 모닥불 가 풀밭에 누워서 그 별을 보는 기분이란. 하지만 별을 열심히 본 덕에 오계를 받을 땐 졸고 말았다. “음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가 우리들에 의해 외쳐지고 향 세 개의 자국이 내 왼쪽 팔에 새겨졌다.

이로써 나도 불자의 길로 한 걸음 어렵게 내디뎠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수련회를 끝내고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가장 어울릴까 생각하다 결국 나는 “정말 배웠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래 그것이 정답이네.”

연비한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스님들께 정말 감사 드린다.

“글구요, 스님, 다음엔 천팔십 배 해요 꼭이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김나영/순천 매산중 2

어머니께서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신청하자”고 하셨을 때부터 난 반대였다.

왜냐, 내가 다니는 학교는 미션스쿨이기에 난 교회에 나갔다. 또 전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동안 그 수련회에서 온 사람들은 찬양,기도를 하면서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후 난 종교적인 곳에서 하는 수련회는 가질 싫어하게 되었다.

계속 가느냐 안가느냐로 어머니와 내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어머니의 ‘사주기 작전’은 진행되었다. 그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옷, 신발 등을 무조건 사주기.

아주아주 무서운 작전이기에 난 패배를 선언하고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순천 대승사 선배님들 사이에 막내로 끼어서 송광사로...

첫날과 둘째날. 정말 살벌하고 힘들었다. 공양하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울면서 밥을 먹을 정도였으니...

하지만, 그후의 모든 시간들은 살벌하고 힘든 시간이기보다는 뜻있고 기쁜 시간이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는 무엇보다 즐거웠으나 철야 정진을 할 땐 정말 졸려 혼났다. 그리고 스님들과 한층 더 가까워져서 좋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윤좌 법회 때 시간이 별로 없어 더 많은 범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을 사귀지 못한 것이다.

강주 스님의 토론 방식 강의는 아주 좋았다. 나머지 스님들도 강의 하실 때 수련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토론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난 중요한 걸 얻었다. 인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것도...

‘짧은 출가 긴 깨달음’처럼

복 福

본연/치문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하회 민속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전통적인 풍산 유씨의 양반 마을이며 고려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로 조선 시대에는 유성룡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마을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근처 풍산 길목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 주고 식사 대접도 하며 쉼을 삼아 보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시를 10년 가까이 하고서야 비로소 이곳 하회 마을에 들어와 나무를 베고 터를 닦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하회 마을의 자랑은 하회별신굿입니다. 탈놀이 역시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회 마을은 양반 마을이었고 이곳에서 소작하는 많은 기층민이 있었는데 하회별신굿은 이 기층민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기층민이 주체가 되어 양반집 마당에서 한바탕 굿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각시, 할매, 파계승, 양반과 선비, 머슴인 초랭이 등의, 표정의 변화가 가능한 탈을 쓰고 당시의 양반과 선비를 질타하고 한을 토로하는 마당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랄하게 양반을 비판하고 기층민의 한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회 마을이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

지 문화 유산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대사만 보더라도 동학 혁명과 일제 식민지,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온전히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첫째는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길목에서 움막 짓고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한 그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若菩薩이 無住相善施하면 其福德이 不可思量이 나라’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둘째는 가진 자의 아량입니다. 그 후손 역시 상(相)없이 기층민이 불만을 터놓을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고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회 마을의 양반들이 ‘나’라는 아상이 있었다면 양반과 선비가 질타당하는 별신굿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만 보더라도 반대자를 철저히 봉쇄하고 탄압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암살을 당하였고, 후손 역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슬기로웠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길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성경에서도 계보다 배움을 더 중(重)하게 말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무주상보시를 말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자 거리로 나가서 중생 제도를 해야겠다고 스승께 고하자, 스승이 말하길 “너는 깨달음을 얻었어도 복이 없으니 복을 지은 다음에 저자 거리로 나가”라 했으나, 이분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슨 복이 필요한가’하고 저자 거리로 나왔으나 아무리 훌륭한 경지의 법을 설하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낙심 끝에 스승의 말씀이 떠올라 입고 있던 옷을 팔아 곡식으로 바꾸어서 참새들에게 뿌려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지 20여 년이 지나서 신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스무 살 남짓한 젊은들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곡식을 얻어 먹었던 새들이 사람 몸을 받아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오는 무수한 보살행을 그냥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인데, 정작 수행자인 우리는 소홀히 하면서 신도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할 일입니다.

바람따라

회일/사집

바람따라 가리
 방향 없이 차라리
 두 눈 감고 이끌려 가리
 멀고 멀어서
 아득한 겁 닳은 발걸음
 마른 핏방울

바람따라 가리
 미련 없이 차라리
 설움 버리고 이끌려 가리
 삭고 삭아서
 아예 몽그라진 뼈
 식은 한숨

바람따라 가리
 있음 없이 차라리
 비어 허공으로 이끌려 가리
 가볍고 가벼워
 허물어져 바람 같은 맘
 가벼운 탄식

바람따라 가리
 가서 오지 않으리
 언제 한 번 온 적도 없는 듯
 언제 한 번 기억도 없이
 가서는 오지 않으리

첫 안거를 마치고

도선/치문



며칠 전에 내린 많은 비로 계곡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올 여름 내내 애태우고 갈증나게 했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라 더없이 반가웠다. 화단에 피어 있는 봉숭아꽃이며 담쟁이넝쿨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어린 호박벌들이 떼를 지어 왕왕거리며 화단을 넘나들고 있다. 후덥지근한 기운들이 태풍에 말끔히 밀려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그동안 삼복 더위에 엇가락 녹아내리듯 풀어졌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고마운 단비 보살께 합장이라도 해볼까? 여름 내내 이웃 동네와 왕래가 끊겼던 냇가의 물고기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신바람나 있으리라. 넘쳐 흐르는 계곡의 물결을 따라 이웃 동네를 마음껏 헤엄치며 거친 물살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 여름의 한낮이 다 가기 전에 언제 틈을 보아 계곡에 들어가 물고기를 쫓으면서 오후의 한나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숲속 나뭇잎을 스치고 가는 바람소리나 청량한 계곡 물소리는 늘 우리들을 깨어 있게 해주는 말없는 스승인 것 같다. 깊은 밤에는 더욱 그러하다.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반의 소임자 선거도 끝나고 지금은 결제 마지막 기도 정진을 하고 있다. 가지가지의 생각과 가지가지의 취향과 가지가지의

모양이 다른 지옥 중생들을 희거나 검은 것 가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여 구제해 주신다는 대원력의 지장 보살님!

기도 중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면서도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기가 참으로 힘이 든다. 고달프고 소용돌이치는 삶의 한가운데서 멀리 떠나옴은 소극적이거나 은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아닐진대, 때때로 출가해서도 오히려 세속적인 삶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느낄 때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부끄러워진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자. 이보다 가치 있고 좋은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비개인 여름 하늘이 맑고 푸르다. 목우현에서 마주 보이는 조계봉 위로 흰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의 넉넉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저 풍요로운 보살의 마음을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덧 세상 소식을 잊고 산중에 산 지도 한 해가 지났다. 해제하면 어디로 가볼까? 우리반 스님들도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라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느라

佛日庵

佛日庵 좁은 산길 후이후이 올라가니
 庵坊主 法頂스님 濟世佛法 究考인가
 삼발에 다림취란 놈 들린 쌀을 쥐먹더라

—인암스님의 송광사순례지조집 중에서—



고 다소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첫안거를 지내고 맞이하는 방학이라 우리 도반 스님들의 기대와 가슴 설렘은 특별한 것 같다. 멀리 강원도 산간 지방을 돌면서 탁발하며 공부해 보고싶다는 스님,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안의 도량들을 참배하면서 구도자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싶다는 스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보궁들을 참배하면서 출가의 의지를 새롭게 다져 보고 싶다는 스님 등 모두의 바람과 각오가 단단한 것 같다. 출가해서 마음 밝히지 못하면 해제가 어디 있으라마는 나도 문득 떠나 보고 싶어진다.

밀짚모자 눌러쓴 걸망쟁이로 그 사이 너무 익숙해진 지금의 이 보금자리를 한번쯤 떠나보고 싶다. 구도의 일념으로 수천리 길을 밤낮 없이 걸어서 오조 스님을 찾아갔던 나무꾼 혜능처럼.

울주 스님의 바쁜 음성이 아래쪽 후원에서 들려온다. 망상은 그만 피자. 가뭄 끝에 내린 단비로 목우현 주변에도 풀들이 많이 자랐다. 울주 스님 오시기 전에 서둘러 뽑아야겠다. 내 마음의 잡초까지도...



도상파편

설주/치문



1

고등학교 입학년 때의 일이다. 갓 입학한 또래의 사춘기 소년들은 힘든 입시 공부 중에도 한담을 나눌 때가 있었다. 그중에는 크리슈나 무르티와 라즈니쉬, 마하리쉬 등 인도 명상 철학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세계와 인생에 대한 고민은 바야흐로 사춘기 소년을 사로잡고 있었다.

2

작문 시간에 시인이자 국어 선생님인 이00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처럼 박식한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무슨 질문이든 하거라!” “선생님, 인도 철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에, 그건 말이야, 먼저 불교와 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쉬워질거다.”

청담 스님과 석지현 스님 등의 이름을 들었다. 청담 스님의 법어집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나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디디게 했다.

3

고등학교 입학년, 지루한 여름 방학 중에 우연히 책꽂이에 걸표지도 없이 꽂힌 책을 꺼냈다. 표지 안

쪽의 흰 면이 밖으로 뒤집혀 있어서 바로 펴보니 책 이름은 <산방한담> 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장 두 장 뒤적거리던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야!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책을 쓴 분은 법정 스님이라고 했다. 조계산 불일암에 살고 있다고 했다.

4

1989년 11월 11일. 어머니는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고, 나는 대학에 갔다. 우연하게 알게 된 불교를 이제는 평생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달마를 알게 되었고, 혜능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대학의 현실과 우리 사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나의 심신을 고달프게 하였다.

5

학교를 졸업했다. 물론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주유소에서 야간일을 하면서 보냈다. 중학교를 그만두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이들과 두 달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나는 출가했다.



6

90년 겨울, 울면서 내려갔던 조계산을 다시 올라왔다. 감격스럽게도 행자실에 입방했다. 이제는 지난번처럼 공양을 남겨서 버리다 쫓겨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송광사 행자실에서 삶의 무척이나 고달팠다.

나는 엄격함과 치열함,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배웠다. 화엄전 방우산방에 올라가서 동당 스님께 머리 조아려 엎드리고 설주라는 범명을 받았다.

7

행자 교육원에서 수계하고 조계산으로 돌아왔다. 큰방에 방부를 들어서 치문반에 들어갔다. 어른 스님께 인사를 하러 다녔다. 불일암에도 다녀왔다. 책에서만 보았던 동경의 땅을 밟은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던 죽림정사처럼 대나무가 많았다. 나랑같이 수계한 도반은 다섯이다. 나까지 여섯 명.

오늘도 큰방에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난다. 요즘의 걱정거리는 진지를 잘 해내는 것이다. 밥푸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원고모집

다음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이나 주제는 자유이며,
진실되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는
글이면 환영합니다.
강원대중 모두의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오니 언제라도
편집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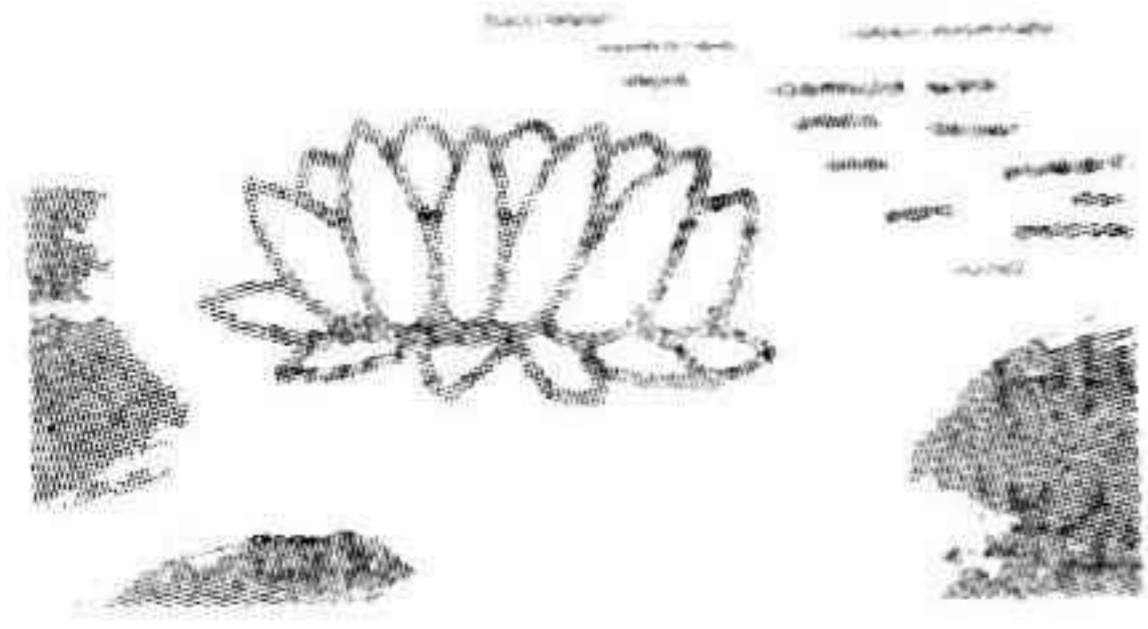
해청당 편집실

표지화가



— 止 李洪基 거사는 1956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십년 넘게 명산을 찾아다니며 선화 수업을 쌓았고, 두 해 전 조계산이 좋아서 송광사 이웃 동네인 장안마을에 와서 선화를 그리며 살고 있다.

편집 후기



해청당 마루에서 올라다 보이는 조계봉에 알록달록 무늬가 박히고 있습니다. 가을호를 내놓게 되니 고마운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원고가 넘쳐서 오랜만에 즐거운 고민을 하게 해주신 학인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고를 내주셨지만 '해청당'의 그릇이 작아서 담아드리지 못한 스님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一止 거사님, 티셔츠 디자인을 해주신 반야화 보살님, 앞장서서 티셔츠를 팔아주신 서점 보살님 등 열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할만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을호답게 수행의 열매로 가득합니다. 수행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들이 못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수행의 향기를 전하겠다는 '해청당'의 의지가 어느정도 채워진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떡잎을 피운 것에 지나지 않다는걸 잘 알고 있기에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더 좋은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호에도 함박눈 같은 원고와 도움 아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청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 지묵, 인경, 보적, 시공, 도안, 보행, 정묵, 연해 스님 서웅기 처사님, 우경숙, 류귀선, 제인선, 이순득 보살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송광사 수련회' 참가 수련생, 노보살님 등 그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무소에서 매철 발행할 때마다 30만원씩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해청당후원자를모십니다

해청당'은 기획에서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까지 오로지 학인의 손으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고 있지만 한 번 발행하는 데 1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한 점 수행의 향기를 전하고자 맨손으로 시작한 '해청당'이 깊이 뿌리 내리고 알찬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해청당'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1676 - 0016222-12

예금주 : 강정신

해청당 편집실

☎ 541 - 930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 (0661) 53 - 2131

대한 불교 조계종 추천 도서



어린이 불교 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 정 스님 감수
말아 엮은이·적 경

- 어린이 법회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양장 · 케이스 · 369쪽 · 값 : 9,000원

총판·운주사·720·9372~3, 735·9170
법보시는 법련사(02·733·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
출판

달이슬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8-22
Tel.267·8101 Fax.263·3002



慈靜庵奇峯老講伯問南華經

龍岳堂 慧堅

譯：然觀스님

清晨携杖步崑經
百尺孤菴絕頂居
探景登欄然後也
尋眞入谷以前於
簷端月到映金佛
樓角風來動木魚
數朔滄留佳興足
談論餘暇軸詩叙

맑은 새벽 지팡이 짚고 돌길을 걷노라니
뎡그만이 외딴 암자 산꼭대기에 있네
경계를 찾아 난간에 오른 것은 나중의 일이요
먼저 진리를 찾아 골을 찾아든 것이네.
처마 끝에 달이 와 金佛을 비추고
누각 끝에 바람이 불어 목어를 두드리네
며칠 동안 머무노라니 너무나 흥이 겨워
담론하는 여가에 싯귀 읊조리네.

불일암은 원래 자정암이 있던 곳으로 6·25 이후 누각 한 채만 남아 있던 것을 십구 년 전 법정 스님이 다시 짓고 고쳐 부르게 된 것이다. 근처에 수선사 제7세 자정국사 부도가 모셔져 있으며, 전망이 빼어난 암자이다.